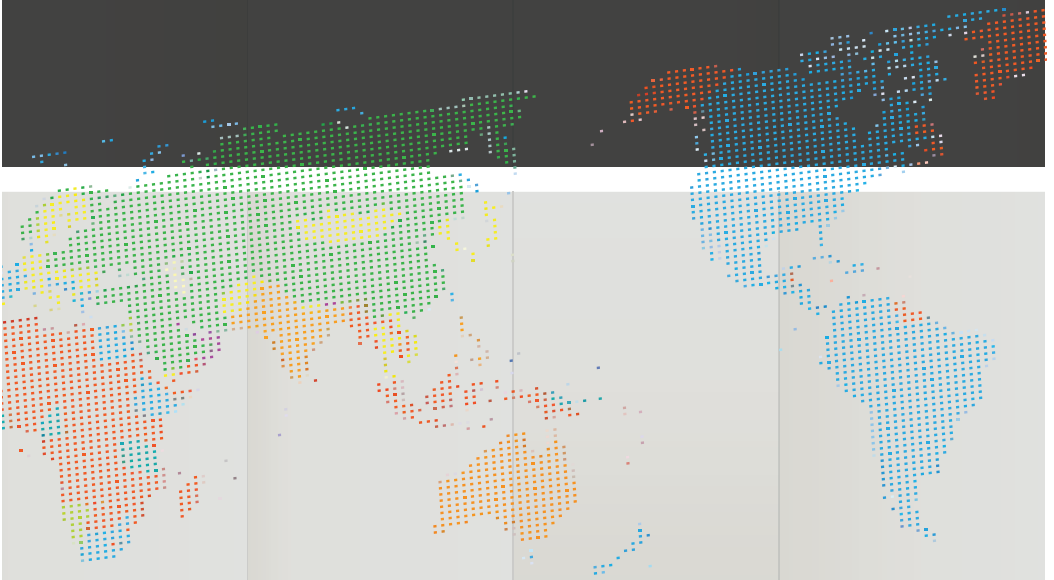


ODA

정책연구 13-10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 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

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23
1. 라오스 경제개관	24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29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37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45
1. AfT의 국제적 동향	46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53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64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73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77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78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78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79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81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82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82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84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88
가. 사업배경 및 개요	88
나. 사업 내용	89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91
라. 사업 시행	92
마. 진행상황 평가	95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100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100
나. 사업 평가	102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105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114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116
가. 수출금융제도	117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122
다. 수출보험	125
3. 라오스 금융 현황	126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130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39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141
가. 무역정보서비스	142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142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143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146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146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149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156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158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163
제7장 요약 및 결론	169
참고문헌	181
부 록	187
Executive Summary	193

표 차례


표 2-1. 라오스의 주요 경제지표	25
표 2-2. 라오스 국제수지의 변화 추이	28
표 2-3. 라오스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28
표 2-4. 한국의 대라오스 교역 규모	39
표 2-5. 대라오스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2009~12년)	40
표 3-1. AFT 공여액 추이(전 세계)	46
표 3-2. 주요 항목별 ODA 구성금액(DAC 국가군 기준)	48
표 3-3. 항목별 AFT 공여 추이(전 세계)	49
표 3-4. 무역정책 및 규제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50
표 3-5. 경제 인프라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51
표 3-6. 생산역량 배양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52
표 3-7. 라오스의 주요 산업부문의 GDP 대비 비중	55
표 3-8. 라오스의 ODA 수원 추이	56
표 3-9. 대라오스 분야별 ODA 총지출액 현황	57
표 3-10. 한국의 유상 ODA 현황	58
표 3-11. 한국의 무상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총괄표	59
표 3-12. 라오스에 대한 AFT 분야별 공여액	64
표 3-13. 라오스의 수출축진 중점 분야 및 범분야 이슈	65
표 3-14. 라오스 Trade SWAP의 구조	65
표 3-15. 라오스의 빈곤율 추이	67
표 3-16. 분야별 실질 GDP 성장기여율	68

표 4-1.	라오스 의류부문 수출금액 및 비중	80
표 4-2.	연령별, 성별 의류산업 근로자의 직업군별 분포(비숙련직 제외)	87
표 4-3.	주요 산출물과 평가지표	93
표 4-4.	사업예산 분담내역	95
표 4-5.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개요	101
표 4-6.	수준별 훈련기준	102
표 4-7.	라오스 TVET 현황(2010년)	107
표 5-1.	총대출 중 수출금융의 비율	115
표 5-2.	일반금융과 수출금융 간 대출금리 비교	116
표 6-1.	라오스 정부의 무역 관련 부서	144
표 6-2.	TDF 2의 자원 배분	157
표 6-3.	한국의 무역진흥기관 설립 및 운영 경험	159
표 6-4.	KOTRA의 주요 사업	160
표 6-5.	무역진흥기관에 대한 저개발 수원국의 우려와 한국의 경험	161
표 6-6.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조치	162

그림 차례

그림 2-1. 2년 전과 비교한 기업 규모 현황(2011년)	31
그림 2-2. 사업장 규모별 종업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주의 비율	32
그림 2-3. 국가경쟁력 비교(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7
그림 3-1. 라오스에 대한 협력의 기본 방향	61
그림 3-2. 수력 및 광업의 성장 기여도	66
그림 3-3. 라오스의 분야별 투자 현황	70
그림 3-4. 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72
그림 4-1.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	83
그림 4-2. 기업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4
그림 4-3. 라오스 TVET 문제(Problem Tree) 분석	108
그림 4-4. 라오스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ET AFT 프로그램 흐름도	109
그림 5-1.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의 흐름도	134
그림 6-1. 라오 무역 포털	148
그림 6-2. 사업개발서비스의 지원방식	153
그림 6-3. 라오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	168

글상자 4-1. TDF의 라오스 의류기술훈련센터 지원 사업	99
글상자 6-2. '수출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요	165



제1장
서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중점 분야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이나 공업화를 위한 투자 위주의 원조는 이로 인한 수원국의 외채상환문제를 수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원국의 교육, 보건, 농촌개발, 사회서비스 등의 개선을 추구하는 미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도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그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장 지향적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가 원조의 새로운 중점 분야로 추진되게 되었다. 특히 OECD와 WTO는 AfT를 핵심 원조 분야로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빈곤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이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¹⁾

무역의 확대가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즉, 무역의 확대가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달성한 국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ATT 및 WTO 체제 하의 저개발국 및 개도국의 무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들 국가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역 기회를 증진하는 데에

1) Af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인수 외(2011) 및 이호생 외(2012) 참조.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에 대한 원조의 범위가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이들 국가의 무역 및 생산 역량의 확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2010년 G20 서울개발의제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무역관련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AfT 규모를 증가시켜 왔다. 특히 한국은 수원국의 경험과 동시에 무역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저개발국 및 개도국의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사례연구 대상으로 라오스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라오스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프로그램형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있어서의 AfT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라오스 정부의 5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 라오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EIF(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사업에 따라 작성된 DTIS(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와 그에 기반을 둔 ‘National Export Strategy’ 등 라오스 정부의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한국의 유망 AfT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또한 개별 AfT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AfT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라오스에 적합하도록 현지화하여 AfT 프로그램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수요를 파악하여 한

국의 유망 Aft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Aft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ft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의 관련 정책 및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Aft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논의에 그친 데 반해 본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국인 라오스를 선정하여 라오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ODA의 소액 다수 개별 프로젝트 접근 방식으로 구성된 사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종합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한국의 비교우위와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주요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ODA 추진방안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하여 G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및 개발효과성을 위한 부산선언 이행과 연계하여 부문별 정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ODA의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에 공헌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렇게 본 연구는 한국 ODA 부문별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구체성은 있으나 타 분야나 타국

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등에 적용하고 일반론적인 시사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호생 외(2012)가 도출한 협력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일반론적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 경제개관을 살펴보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 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후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의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분야,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전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1. 라오스 경제개관

라오스는 1975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시장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 1988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는 헌법을 시장경제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W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러한 체제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종전의 집단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의 도입 및 확대, 시장화와 의사결정의 재집중화,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개방화로 요약할 수 있다. 라오스의 체제전환전략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결과 라오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조 의존 경제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및 대외부채의 지속적 증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이에 수반하는 국내 생산능력의 저하, 지나친 자원의존 경제, 사회적 불평등 및 지역발전 불균형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라오스는 사회주의 정치와 시장경제가 심각한 충돌 없이 병존하고 있고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오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의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라오스의 경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두주(2011) 참조.

표 2-1. 라오스의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 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내 경 제	GDP	백만 달러	5,313	5,598	6,461	7,891	8,937	
	1인당 GDP	달러	856	886	1,003	1,204	1,338	
	경제성장률	%	7.8	7.6	7.9	8.3	8.4	
	산업생산 증가율		2.0	3.0	16.8	13.0	-	
	국내 총투자/GDP		37.1	34.7	33.6	39.0	-	
	실업률		2.4	2.4	2.4	-	-	
	재정수지/GDP		-3.8	-6.5	-4.4	-2.3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7.6	0.0	6.0	8.7	6.7	
환율(달러당, 연중)	Kip		8,744	8,516	8,259	8,030	7,926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백만 달러	-982	-1,174	-1,173	-1,530	-1,755	
	경상수지/GDP	%	-18.5	-21.0	-18.2	-19.4	-19.6	
	상품수지	백만 달러	-311	-408	-314	-205	-300	
	상품수지/GDP	%	-5.9	-7.3	-4.9	-2.6	-3.4	
	수출	백만 달러	1,092	1,053	1,746	2,131	2,300	
	수입		1,403	1,461	2,060	2,336	2,600	
	서비스 수지		294	261	248	-	-	
	수입(Credit)		402	397	511	-	-	
	지급(Debit)		108	136	263	-	-	
	자본수지		433	635	477	-	-	
	FDI 순유입		228	319	279	-	-	
외환보유액	629		609	703	767	-		
외 채 현 황	총외채 잔액		%	5,138	5,727	5,957	6,810	8,043
	단기 외채			3	9	36	31	-
	총외채 잔액/GDP	96.7		102.3	92.2	86.3	90.0	
	외채 상환액/총수출	10.0		11.2	10.4	9.2	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재인용: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라오스국가협력전략』, p. 100.

라오스 경제는 최근 8%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World Bank of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Lao PDR Economic Monitor(World Bank, 2013d)에 의하면 2013년에도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 중장기적으로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성공과 비자원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7.6%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2012년 11월의 3.4%에서 2013년 3월에는 5.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3.7%에서 10.1%까지 상승한 식품가격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3년 물가상승률은 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업 및 수력발전 수익의 증가로 정부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라오스는 지역 및 국제 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42개국으로부터 일반관세특혜(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부여받고 있으며 미국과도 2005년부터 정상무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27개국과 양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ASEAN 경제공동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다자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WTO의 가입은 라오스가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고 가입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개혁조치들을 이행하고 법률의 규제를 받는(rule based) 경제로 변모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라오스는 풍부한 미개발 천연자원과 넓고 비옥한 농지, 다양한 관광 지역의 보유, 자연재해의 피해가 없는 등 주변국

3) 이는 종전의 7.6% 성장 전망보다 높은 것인데 시멘트의 생산과 수력발전소의 증설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역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사회경제 및 금융 안정과 낮은 범죄율 등 높은 안전도, 주변국에 비해 낮은 임금 비용, 자유로운 법률과 규정 등 친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조성과 같은 장점도 있다.⁴⁾ 라오스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투자촉진관리위원회(CPMI: Committee for Promotion and Management of Investment)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중앙정부 투자촉진관리위원회(CPMI)의 의장직을 담당하며 상임부서로 투자촉진처(IPD: 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와 원스톱서비스(OSU: One-Stop-Service Unit)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지사 혹은 특별시장이 지방정부 투자촉진관리위원회(CPMI)의 의장직을 겸임하며, 상임부서인 주정부 투자촉진처(Provincial Department for Planning and Investment)와 산하 투자관리 부처에 원스톱서비스를 두고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인소득세 면제 인센티브,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비즈니스 확장에 사용되면 해당 금액을 차기 회기연도 순이익에서 공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원자재, 장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라오스의 국제수지는 외국인 투자의 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2013년 라오스의 국제수지는 GDP의 0.6%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GDP의 21.8%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2.5%에 달하는 자본수지의 흑자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원 분야의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적자 폭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자세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1) 참조.

표 2-2. 라오스 국제수지의 변화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율, %)

	2009	2010	2011	2012	2013(전망)
경상수지	-9.8	-6.4	-10.4	-15.4	-21.8
자원부문	-0.2	4.8	4.1	1.1	-6.1
비자원부문	-9.7	-11.2	-14.5	-16.6	-15.7
무역수지(백만 달러)	-734	-440	-762	-1,482	-2,258
자본수지	8.5	7.8	9.7	16.1	22.5
총합수지	-1.3	1.3	-0.6	0.7	0.6

자료: World Bank(2013c).

라오스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수력발전, 광업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업,⁶⁾ 철도건설,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 라오스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은 전력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연간 18.5%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은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라오스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1차 산업	31.0	29.4	27.4	25.9
2차 산업	30.8	33.3	35.5	37.3
3차 산업	38.2	37.3	37.1	36.8

자료: KOTRA 라오스 무역관 국가정보(www.globalwindow.org, 검색일: 2013.10.1).

- 5) 2003년 1,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광업생산은 2012년 12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6) 2011/12 관광수입은 4억 달러에 달하고 총 관광객 수는 약 330만 명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는 370만 명의 관광객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⁷⁾

라오스는 1986년 NEM의 도입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의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다. 세계은행의 “Lao PDR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2011a)에 의하면 약 12만 7,000개의 기업이 라오스에서 활동 중이며 이 중 97% 이상이 10인 미만(93%는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다. 중기업 및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를 라오스 국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50%는 외국인과의 합작기업이고 나머지를 국영기업으로 구성되어(국영기업은 전체 노동의 1% 정도만을 고용하는 실정) 있다. 라오스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이웃 국가보다 낮는데 베트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05년과 2009년 사이 생산성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라오스의 제조업 기업 중 약 20%만이 수출을 하는데 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캄보디아 44%, 말레이시아 62%, 태국 62%, 베트남 49%). 또한 수출 기업은 비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이며 외자계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라오스 기업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오스는 23%의 기업이 생산을 위해 수입중간재에 의존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보다 낮은 비율이다.⁸⁾

한편 서비스 부문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7.4%의 높은 성장을

7) 본 절의 내용은 World Bank(2011a)과 GIZ(2012)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8) 타 비교 국가의 경우 50% 이상의 기업이 생산과정에 수입 중간재를 활용함.

하였지만 향후 10년간 이보다 낮은 6.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성장에 기여한 주요 부문으로는 도소매업, 금융중개업, 교통, 저장 및 통신(storage and communication) 등이 있다. 건설 부문의 성장은 천연자원 분야의 높은 FDI와 ODA를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높은 공공투자와 국내 도시의 부동산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비자원 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개선 및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민간부문에서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장 제약 요인을 제거하여 라오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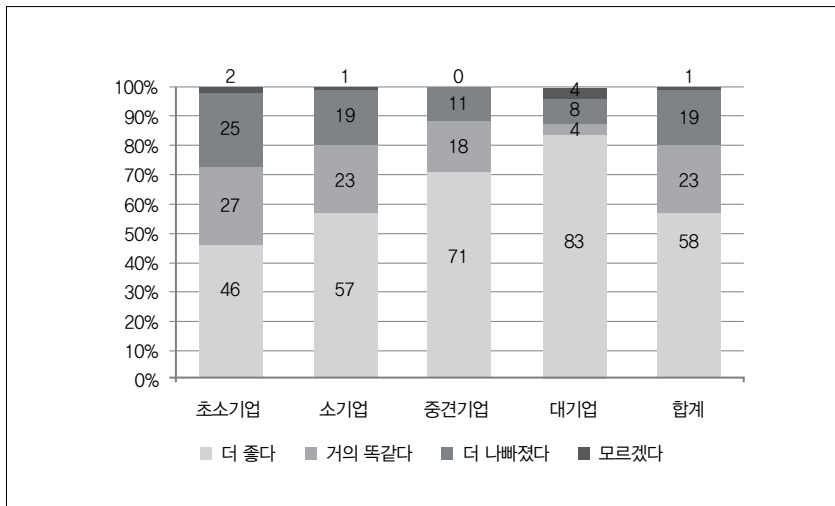
라오스의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자금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 등이 대부분 기업의 주요 성장제약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하의 기업이 부패, 법률적 정의의 질적 가치, 조세행정,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허가와 관세무역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은 높은 세율을 성장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보며 중기업 및 대기업은 불충분한 기술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적 세금 비율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며 캄보디아보다는 높지만 세금 납부 세액은 대부분의 인근 국가보다 낮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제도 및 세금징수 과정의 비효율성은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중소기업은 주로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기업경쟁환경의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특히 현행 조세행정제도의 임의적인 세금평가 및 일괄세가 중소기업의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이다. 2006년 VAT 법이 실행되었으나 국세법 및 기존 투자법과 불일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지

않아 조세 당국으로서는 집행이 어려우며 기업의 사업상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오스 기업은 공식 금융 기관에서의 자금 확보가 어려운 데 높은 수준의 담보제공과 정식회계의 적용 요구로 3%의 기업만이 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대출받고 있으며 19%의 기업이 운영자금 등을 대출받고 있다.

독일의 원조기관인 GIZ의 *Enterprise Survey 2011*(2012)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2년 전과 비교하여 기업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확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더욱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 2년 전과 비교한 기업 규모 현황(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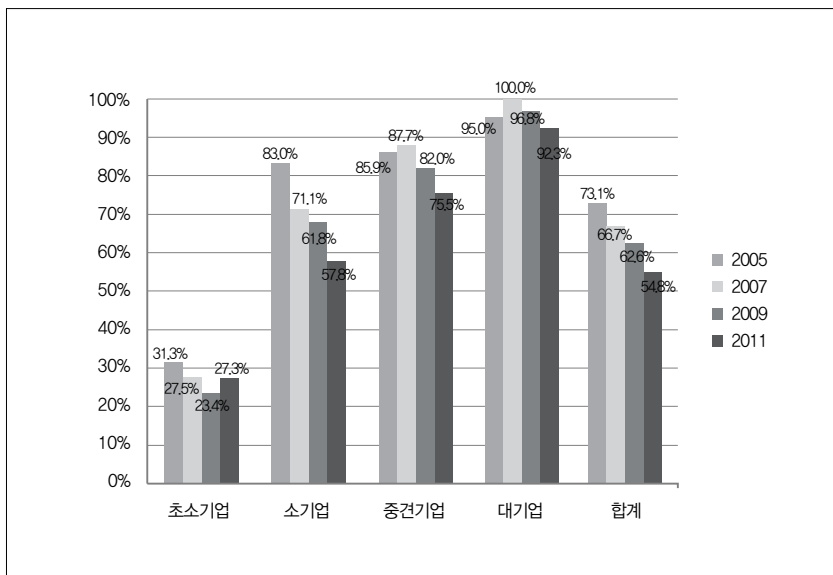
자료: GIZ(2012), p. 60.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대기업 서비스 부문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 관리자의 50%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동자들로

인해 잠재적 생산성 및 성장이 저해된다는 견해를 밝혔다.⁹⁾ 대기업 관리자의 46%는 기술력 부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는 등 라오스 내 대기업은 기술력 부족을 타 국가의 기업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캄보디아와 몽골의 18%, 베트남의 12%의 대기업 관리자들이 기술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라오스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사업주가 종업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비율을 보면 2011년이 2009년보다 낮다. 이는 아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라오스 노동자의 생산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 사업장 규모별 종업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주의 비율



자료: GIZ(2012), p. 93.

9) 소기업에서는 관리자 중 10%만이 이와 같이 답변하였다.

실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시장 내 기술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주로 천연자원 부문에 해당하는 자원 부문의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비자원 부문 노동력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력부족 심화에 이르게 된다.

라오스 인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¹⁰⁾ 이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의 인건비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라오스는 노동력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그러나 라오스 고용주는 직원에게 훈련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오스의 기업의 11%만이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근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간부문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의류, 관광, 건설 부문에서 훈련센터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직원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원 조달은 소기업이 세금 다음으로 언급한 제약 요인이며 중기업 및 대기업은 기술력 부족 다음으로 언급한 제약 요인이다. 비교국가보다는 높은 비율인 92%의 기업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극소수의 기업만이 신용거래를 한다. 그러나 19%의 기업만이 대출 또는 신용거래가 있으며

10) 80%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71%가 농업, 수산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극소수의 기업만이 공식기관에 신용거래 신청을 하고 있다. World Bank(2011a)의 조사결과, 11%의 기업이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베트남과 몽골의 50%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투자율과 자금조달의 수요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출신청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공식적 수수료와 높은 담보가 대출신청의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투자목적 자금에 대한 은행의 공급 능력 부족과 토지 및 건물 형태의 담보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금융 분야의 미흡한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이 담보의 90%를 차지하며 소유물을 담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절차를 요구하여 기업의 담보 활용이 어려운 점도 금융 분야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6%의 소기업과 26%의 중기업이 신용제도(credit line)를 활용하지만 대기업은 35%를 활용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은 특정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 산업의 70%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제도를 활용하며 의류산업의 중기업 및 대기업이 신용거래의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빠른 신용거래 확대는 소수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은행의 수는 2006년 12개에서 2011년 25개로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거래의 GDP 비율은 2005년 7%에서 2010년 20%로 증가하였고 국유기업의 신용거래가 민간부문의 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력 수급은 2005년부터 향상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력에 대한 문제점을 겪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22%가 전력을 주요 문제점

으로 제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나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 낮고 2005년과 2009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력에 대한 문제점은 41%에서 22%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력문제에 관한 제약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와 목재 공급과 관련된 산업보다 의류 및 기타 제조업 등 전기활용이 큰 부문에서는 제약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오스는 전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이 공급되는 가구 수는 1995년 16%에서 2004년 45%로 증가하였고 2009년 전기 사용률은 63%까지 상승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가구의 90%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전력은 라오스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라오스의 주요 수입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열악한 송배전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World Bank의 2011년 라오스 투자환경 조사에 의하면 수출업자가 비수출업자에 비해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¹¹⁾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수출업자의 경영 환경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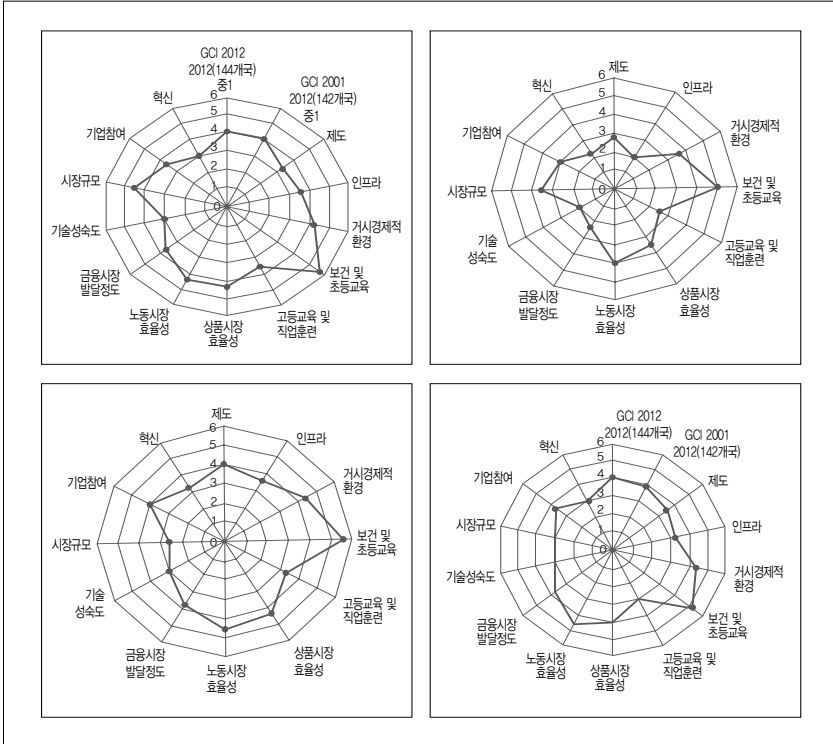
기업은 정부의 부패를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공무원에 대한 비공식 수수료 또는 선물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 정도의 기업이 업무를 하는 데 부패가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다른 비교 국가보다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0%의 기업이 공무원에게 빠른

11) 수출 기업은 규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경영진 업무의 5.6%를 할당하는데 이는 비수출 기업보다 1.8%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절차를 위해 비공식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비교국가보다 높은 비율이다. 특히 사업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88%의 기업은 운영허가를 얻기 위해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의 기업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3)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에 의하면 라오스는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81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얀마 139위, 캄보디아 102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베트남의 70위보다는 낮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기본 요건(Basic Requirement) 측면에서는 7점 기준에 4.4점을 획득하여 83위이고 그 세부 항목인 제도는 63위, 인프라 84위, 거시경제환경 93위, 보건 및 초등교육 80위 수준을 나타냈다. 효율성 제고 분야(Efficiency Enhancers) 측면에서는 107위로 전반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세부 항목인 고등교육 및 훈련 111위, 상품시장 효율성 54위, 노동시장 효율성 44위, 금융시장 효율성 91위, 기술 성숙도 113위, 시장규모 122위로 평가되었다. 혁신 및 전문성(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측면에서는 74위 수준이며 세부 항목인 혁신 68위, 기업전문성 78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2-3. 국가경쟁력 비교(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토대로 저자 재구성.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the Lao PDR, 2013a)에 의하면 세계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시험해 왔으나 2012년에는 상품 수출이 16억 9,6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라오스의 대외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

또한 2012~13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3년 10월 기준 수입액은 27억 3,000만 달러, 수출액은 21억 7,800만 달러로 전망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GDP의 4.87%인 5억 5,2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²⁾

2012년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액 중 55.2%는 태국으로 수출되며 호주가 19.7%로 2위, 베트남이 10.3%로 3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라오스의 수출 상위 10개국에 속하지 않는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47.9%), 전력(15.0%), 농산물(10.5%), 광석(10.0%), 공산품(9.5%), 목재가공품 및 반가공품(3.0%) 등이다.

2012년 기준 라오스 전체 수입 물품 중 51.0%가 태국에서 수입되며, 중국(17.4%)이 2위, 베트남(12.14%)이 3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차량 및 부품(21.6%), 휘발유 및 가스(18.3%), 건설기자재(15.2%), 산업기자재(14.1%), 전력기자재(7.5%), 식료품(5.5%) 등이며 주요 수출품인 전력 역시 전체 수입비중의 2.2%를 차지한다.

주변 5개국에 대한 라오스의 경제의존도는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제외한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0.5%, 수출은 79.1%로 이들 국가에 상당 수준 종속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태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라오스 경제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라오스는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2010년 10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7.6%,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라오스로부터의 수입

12) Lao PDR Aid for Trade(laosaft.org, 검색일: 2013.10.01).

액수는 크지 않으나 최근 자원과 기호식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은 라오스의 여섯 번째 교역국이다. 한국의 대라오스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발전업, 제조업, 건설, 농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4월 누계 기준 256건, 7억 5,000만 달러로 4위 수준이다. 현재 라오스에는 55개국이 투자를 진행하는데 베트남(417건, 49억 1,000만 달러), 중국(806건, 42억 7,000만 달러), 태국(743건, 40억 8,000만 달러) 등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표 2-4. 한국의 대라오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56	112	154	165
수입	18	20	4	11
합계	74	132	158	176
무역수지	38	92	150	15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검색일: 2013.10.1).

대라오스 주요 수출입 품목은 [표 2-5]에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물론 수출입 규모 자체가 소규모이므로 한두 건의 대규모 거래가 있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등의 순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을 보면 동, 목재, 커피류, 의류 등이 주요 품목이다.

표 2-5. 대라오스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 (2009~12년)

(단위: 천 달러)

		수출			
		2009	2010	2011	2012
1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6,235	90,714	135,780	147,728
	전기기와 그 부분품	2,367	5,653	7,051	5,642
2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1,983	5,587	2,304	1,645
	전기기와 그 부분품	1,058	1,901	2,236	1,638
3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849	1,888	982	1,464
	철강의 제품	832	1,492	971	1,110
4	철강	600	926	774	1,058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70	599	770	592
5	가구와 침구·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94	524	618	486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78	437	438	441
6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78	437	438	441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닝마	178	437	438	441
7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94	524	618	486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94	524	618	486
8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94	524	618	486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94	524	618	486
9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94	524	618	486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94	524	618	486
10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94	524	618	486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94	524	618	486

표 2-5. 계속

	수입			
	2009	2010	2011	2012
1	광, 슬랙, 회	광, 슬랙, 회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동과 그 제품
	15,060	17,780	2,800	6,120
2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광, 슬랙, 회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248	1,705	519	4,131
3	동과 그 제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제외)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커피, 차, 마테, 향신료
	636	178	340	452
4	기타 비금속, 세메트,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216	136	208	392
5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제외)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제외)
	207	95	198	139
6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커피, 차, 마테, 향신료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63	52	130	17
7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사료식물	음료, 알코올, 식초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사료식물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52	12	93	12
8	커피, 차, 마테, 향신료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너마	음료, 알코올, 식초
	10	10	12	12
9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	음료, 알코올, 식초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10	6	8	11
1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각종 조제식료품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9	6	6	8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검색일: 2013.10.1).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DTIS)에서 제시한 라오스의 무역 관련 경제계획은 National Implementation Unit(NIU)가 수행하고 있다. 라오스 경제발전 및 수출의 제약요인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부재 및 적절한 노동력 및 기술의 부족,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의 집중과 낮은 요소생산성이다. 2013년 2월에 WTO 회원국 가입이 완료되었지만 이미 라오스는 많은 해외 시장에서 최빈개도국으로 GSP 대우 등 여러 가지 우대를 받아온 상황이어서 관세 측면에서의 혜택보다는 무역 관련 제도의 개선과 규제개혁 및 공급 능력 향상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최근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존의 추세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¹³⁾ 2013년 상반기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 목재천연자원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품목 이외에도 전력, 의류 및 농산물은 라오스의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자동차 및 부품, 산업기기, 건설장비 및 소비재 등이다.

라오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따르면 2013년 전반기에 수입과 수출은 45억 2,700만 달러에 달하여 전년 동기(42억 7,900만 달러) 대비 5.3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1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29억 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적자도 증가하여 2012년 전반기 13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에는 14억 4,600만 달러로 8.06%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의 47.86%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로서 광물 수출의 47.87%를 차지하는 금은 1.62%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광물 전체로

13) *Ibid.*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하였다. 또한 전력의 수출도 3.36%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16.41%를 차지한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7.17%를 차지하는데 의류는 9.38% 증가하여 제조업 수출의 58.47%를 차지한다. 또한 목재 및 목재제품과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23.36%와 5.3%를 차지하는데 이들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8%와 11.39% 수출이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및 가스제품으로 전체 수입의 19.74%를 차지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하였다. 그다음 수입품은 자동차 및 부품으로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3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산업설비 14.82%, 건설장비 13.91%, 식품 6.43% 및 전기설비 5.39%의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라오스는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국, 인도, 북한,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러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및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ASEAN 회원국으로서 2010년 기준 1조 8,000억 달러의 GDP와 5억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지역공동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라오스 정부의 무역에 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좋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에 대한 라오스의 관심 역시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무역개발 관련 원조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1. AfT의 국제적 동향

전 세계적으로 AfT는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약정액(commitment) 기준으로 200억~250억 달러(2011년 불변가격)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DAC 국가의 원조 약정

표 3-1. AfT 공여액 추이(전 세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공여국/기관		DAC	
	약정액	집행액	약정액	집행액
1995	22,794	-	17,225	-
1996	26,239	-	20,475	-
1997	23,651	-	17,050	-
1998	24,236	-	16,051	-
1999	22,972	-	15,110	-
2000	22,068	-	14,689	-
2001	24,573	-	14,831	-
2002	24,633	14,771	13,732	8,133
2003	23,731	14,739	14,321	9,573
2004	29,375	18,333	20,255	12,285
2005	28,228	20,995	19,355	14,555
2006	28,865	21,973	20,180	15,922
2007	31,670	24,066	19,871	17,275
2008	42,525	27,773	30,829	19,615
2009	42,453	30,764	25,044	19,799
2010	47,955	34,439	31,253	23,335
2011	45,859	37,876	24,771	22,480

주: 2011 불변가격 기준 금액.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을 다자간 국제기구의 원조 증가로 보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약정액 기준으로는 2011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실제 집행액(disbursement)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1년에는 37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DAC 국가의 약정액 기준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다가 2004년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다시 감소하였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5%에 달하고 있다. 2011년 현재 DAC 국가의 ODA 사회간접자본 형성¹⁴⁾ 지원 비중은 2009년 43.0%에 비해 39.9%로 줄었음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AfT(23.2%), 다부문 및 범부문 지원(10.5%), 인도적 지원(8.7%) 순으로 나타났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6%에서 2011년 2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과거 미분류 대상이었던 항목들이 AfT로 재분류되어 산정된 데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최근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면서 AfT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DAC 회원국의 AfT를 자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약정액 기준으로 무상원조가 130억 달러(52.3%), 양허성 차관이 101억 달러(40.5%)로 나타났다.¹⁵⁾ 집행액 기준으로도 2011년 DAC 회원국 AfT 중 무상원조 55.9%, 양허성 차관 37.6%,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6.5%로

14) 교육, 위생, 보건 및 정부·민간부문 역량 강화 등.

15) 그러나 MDB를 포함한 전체 원조는 유상원조의 비중이 52.4%로 무상원조 비중 43.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DB의 유상원조 비중이 무상원조 비중보다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표 3-2. 주요 항목별 ODA 구성금액(DAC 국가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Aid for Trade	사회간접 자본	다부문 및 교차지원	상품원조 등	부채관련 조치	인도적 지원	기타 지원
1995	17,225	12,720	4,490	5,136	3,763	1,956	1,587
1996	20,475	13,655	4,670	4,253	4,090	2,234	1,678
1997	17,050	14,020	3,999	2,163	3,803	2,372	2,543
1998	16,051	14,399	3,517	4,392	5,835	3,673	2,787
1999	15,110	18,528	5,393	4,668	4,477	6,985	4,559
2000	14,689	21,727	5,155	5,608	5,449	3,825	6,836
2001	14,831	20,930	4,531	4,571	6,571	3,703	6,617
2002	13,732	24,076	5,688	4,686	10,340	5,429	7,898
2003	14,321	27,710	7,674	5,956	21,323	8,514	5,462
2004	20,255	33,941	5,791	4,130	9,836	7,206	8,094
2005	19,355	35,817	7,048	3,726	31,816	10,721	7,868
2006	20,180	41,706	6,955	5,076	26,752	7,558	11,441
2007	19,871	42,508	7,280	4,221	10,135	7,960	9,874
2008	30,829	48,801	7,959	5,538	10,255	9,250	10,896
2009	25,044	50,802	10,982	6,407	2,956	10,103	11,026
2010	31,253	46,568	16,419	3,671	4,038	10,817	9,463
2011	24,771	42,640	11,244	3,247	4,003	9,254	11,738

주: 약정액(2011 불변가격) 금액 기준 구성비. 기타 항목에는 공여국 행정비용, NGOs 지원, 공여국 내 난민 지원, 기타 분류 미상 등이 포함됨.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무상원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상원조가 전체 AfT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온 점과는 다른 경향이다.

AfT는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역정책 및 규제 분야, 경제 인프라 분야, 생산역량 배양 분야, 무역 관련 조정 분야 등으로 대별된다. 최근 전 세계 AfT 증가세는 주로 생산역량 배양 및 경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표 3-3. 항목별 AfT 공여 추이(전 세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약정액					집행액			
	02-05 평균	06-08 평균	2009	2010	2011	06-08 평균	2009	2010	2011
무역정책 및 규제	815	1,134	1,538	1,463	1,313	773	931	1,238	983
경제 인프라	14,118	18,727	23,452	28,612	21,958	12,597	15,124	18,796	17,741
생산역량 배양	11,558	14,729	17,991	18,065	18,235	11,421	15,087	14,762	14,825
무역조정	-	2	16	31	63	9	37	72	17

주: 2011년 불변가액 기준 금액.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집행액 기준으로 경제 인프라 지원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생산역량 배양 지원은 소폭 증가하였다.

AfT를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표 3-4), 우선 무역정책 및 규제 분야는 2011년 원조금액이 집행액 기준 9억 8,000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 중 무역정책 및 관리(trade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와 관련된 원조가 54.2%로 가장 크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관련 원조가 26.4%로 그다음으로 컸다.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과 관련된 원조는 각각 12.7%와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무역정책 및 관리 관련 원조액 비중은 감소하지만 무역원활화 비중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OECD/WTO에서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Af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4. 무역정책 및 규제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약정액					집행액			
	02~05 평균	06~08 평균	2009	2010	2011	06~08 평균	2009	2010	2011
무역정책 및 관리 (%)	624 (76.6)	719 (63.4)	822.6 (53.5)	662 (45.2)	696 (53.0)	519 (67.1)	502 (54.0)	691 (55.9)	532 (54.2)
무역 원활화 (%)	81 (10.0)	202 (17.8)	339 (22.1)	421 (28.8)	381 (29.0)	129 (16.7)	158 (17.0)	347 (28.1)	259 (26.4)
지역무역협정 (%)	81 (10.0)	132 (11.6)	310 (20.2)	323 (22.1)	180 (13.7)	73 (9.4)	188 (20.2)	125 (10.2)	124 (12.7)
다자간 무역협상 (%)	16 (2.0)	45 (4.0)	27 (1.8)	18 (1.3)	15 (1.2)	27 (3.5)	49 (5.3)	33 (2.7)	30 (3.1)
무역 관련 교육/훈련 (%)	11 (1.3)	35 (3.1)	38 (2.5)	37 (2.5)	39 (3.0)	24 (3.2)	32 (3.5)	39 (32)	35 (3.6)
총계	815	1,134	1,538	1,463	1,313	773	931	1,238	982

주: 2011년 불변가액 기준금액.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AfT 가운데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분야는 크게 운송 및 보관, 정보통신, 에너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2011년 집행액 기준으로 운송 및 보관 분야의 비중이 57.3%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에너지 분야(39.9%)로 나타났다(표 3-5).

표 3-5. 경제 인프라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약정액					집행액			
	02~05 평균	06~08 평균	2009	2010	2011	06~08 평균	2009	2010	2011
운송 및 보관 (%)	7,473 (52.9)	10,774 (57.5)	14,751 (62.9)	15,139 (52.9)	11,590 (52.8)	6,963 (55.3)	8,972 (59.3)	10,451 (55.6)	10,165 (57.3)
정보통신 (%)	689 (4.9)	543 (2.9)	710 (3.0)	469 (1.6)	617 (2.8)	532 (4.2)	601 (4.0)	571 (3.0)	506 (2.9)
에너지 (%)	5,957 (42.2)	7,410 (39.6)	7,992 (34.1)	13,004 (45.5)	9,750 (44.4)	5,103 (40.5)	5,551 (36.7)	7,773 (41.4)	7,070 (39.9)
총계	14,118	18,727	23,452	28,612	21,958	12,597	15,124	18,796	17,741

주: 2011 불변가액 기준금액.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AfT 가운데 생산역량 배양(building productive capacity)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 대한 원조액이 2011년 약정액 기준으로 49%, 집행액 기준으로는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금융서비스는 2006~08년 집행액 기준으로 19.8%였던 것이 2009년 2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1년 18.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생산역량 배양 분야 가운데는 금융서비스가 농업에 이어 여전히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 사업서비스 비중은 2011년 10.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200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제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효과성이 강조되면서 GVC로의 편입 확대를 위한 AfT 역할이 커졌고,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제조업 부문의 생산역량 배양을 위한 AfT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6. 생산역량 배양 분야 AfT 공여 추이(전 세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약정액					집행액			
	02~05 평균	06~08 평균	2009	2010	2011	06~08 평균	2009	2010	2011
금융 서비스 (%)	1,839 (15.9)	2,605 (17.7)	3,899 (21.7)	2,871 (15.9)	2,651 (14.5)	2,262 (19.8)	4,224 (28.0)	2,597 (17.6)	2,699 (18.2)
사업 서비스 (%)	1,433 (12.4)	2,140 (14.5)	1,834 (10.2)	2,169 (12.0)	2,218 (12.2)	1,922 (16.8)	1,623 (10.8)	1,670 (11.3)	1,600 (10.8)
농업 (%)	4,399 (38.1)	6,289 (42.7)	8,539 (47.5)	8,835 (48.9)	8,928 (49.0)	4,421 (38.7)	6,298 (41.7)	7,191 (48.7)	6,553 (44.2)
임업 (%)	632 (5.5)	773 (5.3)	676 (3.8)	1,174 (6.5)	1,268 (7.0)	616 (5.4)	748 (5.0)	1,084 (7.3)	932 (6.3)
수산업 (%)	308 (2.7)	401 (2.7)	660 (3.7)	434 (2.4)	425 (2.3)	326 (2.9)	477 (3.2)	369 (2.5)	351 (2.4)
산업 (%)	1,981 (17.1)	1,814 (12.3)	1,713 (9.5)	1,892 (10.5)	2,209 (12.1)	1,355 (11.9)	1,349 (8.9)	1,499 (10.2)	2,060 (13.9)
광업 (%)	853 (7.4)	450 (3.1)	480 (2.7)	511 (2.8)	416 (2.3)	439 (3.8)	232 (1.5)	186 (1.3)	464 (3.1)
관광업 (%)	115 (1.0)	257 (1.7)	191 (1.1)	179 (1.0)	122 (0.7)	80 (0.7)	135 (0.9)	166 (1.1)	167 (1.1)
총계	11,558	14,729	17,991	18,065	18,235	11,421	15,087	14,762	14,825

주: 2011년 불변가액 기준 금액.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3.10.21).

세부 부문별로는 농업의 경우 농업정책 관리·운영, 농업정책 개발, 농촌
용수 분야의 지원액이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농촌 용수
개발을 위한 지원은 2006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6년
대비 74% 증가했다. 임업의 경우 임업정책 관리·운영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에 감소했으며, 임업 개발의 경우 2009년
대비 72.8% 증가하였다. 수산업 역시 수산업정책 관리·운영과 수산업
개발 분야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산업정책에 관련된 행정 역량 배양 및 정책수립을 중점 지원해왔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제조업 분야 원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송설비산업(transport equipment industry) 16.7%, 산업정책·관리 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중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 가장 많았는데, 2011년에는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압도적으로 컸다.

끝으로 무역 관련 조정분야(trade-related adjustment)는 과거 OECD CRS 원조통계에서 ‘일반 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2008년 이후부터 새롭게 분리·신설한 부문이다. 이 분야가 전체 Af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매우 작지만 2008년 이후 이에 대한 지원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무역분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역분야 개발협력에 적절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저개발국, 무역에 대한 제약요인이 해소되면 상당한 무역-경제성장-빈곤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저개발국을 선정하여 한국의 AfT 비교우위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오스는 매우 적절한 대상 국가이다. 라오스 정부는 ‘landlocked’ 국가에서 ‘landlinked’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

여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는 1997년 ASEAN 회원국 가입에 따른 아세안경제공동체에의 편입 확대와 2013년 WTO회원국 지위 확보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획득하여 라오스의 수출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라오스는 Greater Mekong Subregion(GMS) 국가 중 유일하게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전력 및 천연자원을 주변국에 공급하는데 이에 따른 광물 수출 증가와 인프라 개발 확대 등에 따라 2005년 이후 연 7~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광산 등 천연 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이 라오스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및 수력 자원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인 전력은 라오스의 2011년 현재 전력보급률이 76% 수준에 불과하고 전력소비가 연간 10% 내외 증가하여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향후 수출 증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출의 급감이나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비자원 분야의 낙후 가능성 등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비자원 부문의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무역관련 원조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다.

라오스의 경제개발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GDP 성장의 절반이 무역을 통해 창출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최빈국인 라오스는 농업, 목재 및 광물(보크사이트, 구리, 금, 규소 등), 일부 제조업(섬유, 의류 등), 수력발전, 관광 등에 치우친 경제구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표 3-7. 라오스의 주요 산업부문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1990~96년	1997~02년	2003~08년	2009년	2010년
농업	51.3	43.6	36.2	31.9	30.2
비교역재(서비스 및 건설)	35.3	41.6	43.9	44.9	43.6
수력 및 광업	4.2	6.1	9.7	12.7	16.1
제조업	9.0	8.3	10.2	10.5	10.1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3.10.1).

라오스 중앙은행의 *Annual Economic Report 2012*에 의하면 라오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2.41%에서 2012년 26.90%로 감소하였고 2012년 성장률은 3.27%에 불과하다. 특히 임업 분야는 2012년 19.56%(GDP 비중 1.60%)나 감소하여 향후 라오스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산업 부문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1.61%에서 28.34%로 증가하고 성장률도 2012년에 11.41%에 달할 정도로 라오스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산업 부문의 2012년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19.15%(GDP 비중 6.70%),¹⁶⁾ 제조업 14.54%(GDP 비중 10.17%), 광업 및 채석업 8.10%(GDP 비중 6.98%), 전기 및 수도 0.25%(GDP 비중 4.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규모는 총지출 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4억 4,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순지출 규모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감소하여 2011년에는 약 3억 9,600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상보다는 무상 원조의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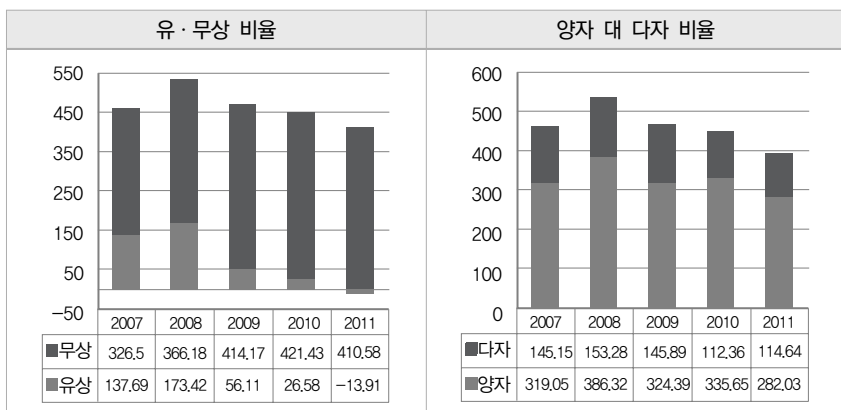
16) 건설업의 높은 성장은 수력발전소의 건설, 도로 등 인프라의 확충 등에 기인한 현상이지만 제7차 ASEP회의, 제9차 ASEM회의, 제16회 ASEAN University Game 등 국제행사의 유치로 인한 건물신축 및 보수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높으며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다자간 원조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07년에서 2011년 평균 전체 양자원조의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라오스의 주요 원조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8. 라오스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 기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양자	319.1	386.3	324.4	335.7	282.0	329.5
일본	113.3	82.0	103.7	130.9	48.5	95.7
태국	26.7	128.1	22.0	23.3	17.2	43.5
호주	29.5	38.7	43.0	38.3	53.9	40.7
독일	25.0	28.6	27.8	26.3	24.3	26.4
대한민국	16.9	12.7	30.5	29.5	33.5	24.6
다자	145.2	153.3	145.9	112.4	114.6	134.3
AsDB	62.8	41.0	47.6	25.8	28.0	41.0
IDA	34.8	41.1	32.9	39.1	27.8	35.1
EU	12.8	20.1	26.4	17.0	22.9	19.8
합계	464.3	539.6	470.3	448.1	396.6	463.8
(증여)	326.5	366.2	414.2	421.4	410.6	387.8



자료: OECD/DAC 재인용: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라오스국가협력전략』, p. 30.

라오스의 분야별 ODA 지출 총액은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인프라에 가장 많은 비중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제 인프라, 생산, 다부문, 프로그램 원조의 순이다.

표 3-9. 대라오스 분야별 ODA 총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사회 인프라	교육	35.4	37.5	46.5	58.0	54.4	46.4
	보건	32.4	35.0	25.3	44.4	44.3	36.3
	수자원위생	12.0	17.5	27.4	22.9	24.4	20.8
	기타	63.1	60.5	64.3	54.8	82.5	65.0
	소계	142.8	150.5	163.4	180.1	205.6	168.5
경제 인프라	교통	52.1	34.2	25.3	34.2	47.8	36.5
	에너지	7.4	12.2	19.3	37.5	27.7	20.8
	기타	16.6	19.7	19.1	21.5	13.3	18.0
	소계	76.1	66.1	63.8	93.1	88.8	77.6
생산 분야	농림수산	55.1	37.0	32.2	34.2	43.9	40.5
	산업광산건설	3.6	5.0	5.1	6.6	7.5	5.6
	무역관광	3.2	8.4	6.8	14.7	16.4	9.9
	소계	62.2	50.6	44.4	55.5	67.8	56.1
다부문		33.9	34.8	49.3	81.6	50.1	49.9
프로그램 원조		14.7	16.6	43.9	19.8	11.5	21.3
기타		28.6	59.2	98.6	118.4	83.3	77.6
합계		309.7	326.4	370.2	447.1	445.5	379.8

자료: OECD/DAC 재인용: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라오스국가협력전략』, p. 32.

라오스는 국가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이다. 최근 들어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취약국을 제외하면 2005~11년 누적액을 기준으로 한국의 공여 순위에서 10위이며 비중으로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외무상원조의 2.3%를 차지하는 12위 수원국이기도 하다.

표 3-10. 한국의 유상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원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5~11합계	
									금액	%
1	베트남	15,29	10,08	24,67	53,22	57,53	96,04	139,49	396,32	9.1
2	이라크	149,54	57,09	53,62	9,76	6,55	11,88	5,29	293,72	6.8
3	방글라데시	31,94	22,19	10,00	8,05	13,55	54,67	80,02	220,43	5.1
4	캄보디아	17,77	13,83	35,28	34,66	17,05	37,33	62,23	218,15	5.0
5	스리랑카	33,21	22,65	33,26	20,30	15,50	43,47	43,36	211,75	4.9
6	아프가니스탄	8,89	2,15	2,58	4,02	24,09	93,68	27,99	163,40	3.8
7	인도네시아	18,32	18,90	28,78	18,94	27,76	24,44	24,29	161,43	3.7
8	필리핀	7,52	7,06	28,16	21,16	22,07	29,54	35,69	151,20	3.5
9	몽골	4,66	5,40	12,90	16,47	32,26	39,15	30,50	141,32	3.3
10	라오스	9,77	13,55	17,90	11,57	25,14	27,75	33,48	139,18	3.2
11	앙골라	0,02	10,09	17,41	25,92	28,34	18,83	16,75	117,36	2.7
12	탄자니아	2,37	3,84	9,42	7,15	9,19	21,46	20,94	74,37	1.7
13	우즈베키스탄	2,63	4,29	3,21	3,99	5,90	32,21	21,99	74,23	1.7
1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12,91	7,76	0,03	13,95	25,13	14,22	74,00	1.7
한국양자 합계		463,3	376,1	490,5	539,2	581,1	900,6	989,6	4,340,3	100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라오스국가협력전략』.

특히 라오스는 한국의 유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 중의 하나로서 2013년 8월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라오스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채택하였다. 라오스에 대한 CPS의 목표는 라오스 중기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함으로써 라오스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표 3-11. 한국의 무상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총괄표

순위	국가	금액(백만 원)	금액(천 달러)	비율(%)
1	몽골	32,120	28,528	7.4
2	아프가니스탄	30,617	27,193	7.1
3	캄보디아	28,589	25,392	6.6
4	베트남	26,897	23,890	6.2
5	필리핀	26,703	23,717	6.2
6	인도네시아	22,317	19,822	5.2
7	에티오피아	18,039	16,022	4.2
8	네팔	12,740	11,315	2.9
9	우즈베키스탄	12,420	11,031	2.9
10	탄자니아	11,397	10,123	2.6
상위 10개국 소계		221,839	197,032	51.2
11	방글라데시	10,719	9,520	2.5
12	라오스	9,841	8,740	2.3
13	이라크	9,028	8,019	2.1
14	페루	8,870	7,878	2.0
15	동티모르	8,465	7,518	2.0
16	파라과이	7,948	7,059	1.8
17	에콰도르	7,874	6,994	1.8
18	가나	7,562	6,717	1.7
19	르완다	7,151	6,351	1.7
20	스리랑카	7,035	6,248	1.6
상위 20개국 소계		306,332	272,077	70.8
무상양자 계		501,338	445,277	100

자료: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2013),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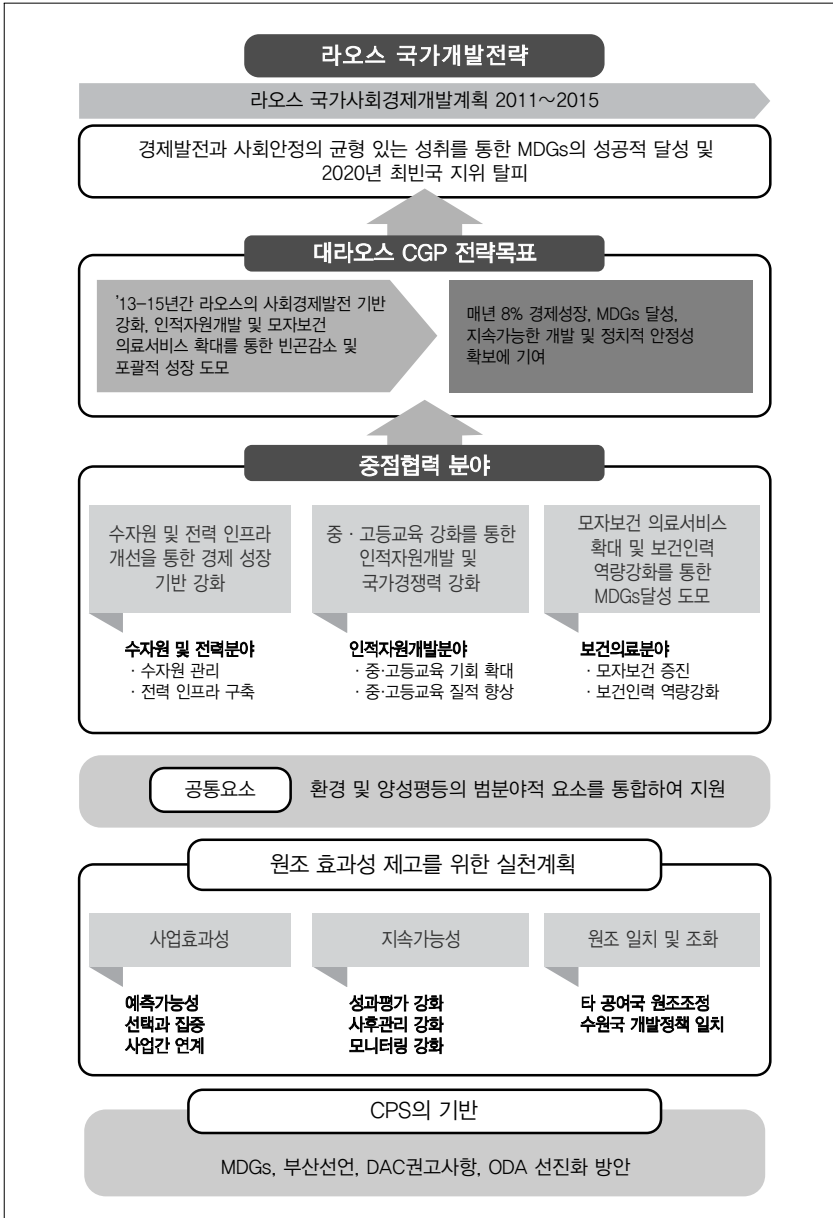
라오스의 개발수요, 기존 사업의 원조효과, 한국의 비교우위 및 타 원조기관과의 원조조화 등을 고려하여 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구축 ② 중·고등교육 기회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 ③ 모자보건증진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MDGs 달성 도모 등이 선정되었다. 여타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지속가능성, 원조조화를 추구하며,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s, 부산글로벌파트너십 국제원조규범, 한국의 상위 원조정책을 준수하도록 하였다.¹⁷⁾

라오스 CPS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라오스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의 향후 원조방향과 한국 원조의 고려사항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라오스 CPS는 향후 주요 공여국들이 라오스의 민간부문 발전, 생산·수출 진흥 등 라오스 경제의 전환과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라오스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무역역량개발에 대한 수요 및 지원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라오스 CPS는 향후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원조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①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enabling business environment)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② 라오스의 WTO 가입 및 ASEAN과의 경제통합에 따라 무역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무역을 위한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라오스에 대한 CPS는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참조.

그림 3-1. 라오스에 대한 협력의 기본 방향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p. 50.

그러나 이제까지 라오스에 대한 AfT는 세계은행과 더불어 일본, EU, 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AfT는 그다지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주요 다자원조기관이나 원조공여국들의 라오스에 대한 AfT 관련 원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은행은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전략(Trade SWAP)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관 및 무역원활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세관행정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관자동화 시스템인 ASYCUDA의 도입과 관세행정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Lao National Single Window Preparation Project를 통하여 수출입에 관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단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현재 동일한 서류를 다수의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감소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대표적인 AfT 사업은 호주, EU, 독일, 아일랜드, 세계은행의 공동기금으로 추진되는 TDF(Trade Development Facility) 지원사업으로 라오스의 무역원활화, SPS 및 TBT 역량 강화, 무역정책역량 제고, 수출 상품 및 수출대상국 다원화 등을 지원한다. EIF(Enhanced Integrated Framework)는 다자간 원조신탁기금을 이용하여 라오스의 National Implementation Unit(NIU)의 역량강화 추진 및 라오스의 국제무역의 통합정도를 분석하는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DTIS)를 발간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Improved SPS Handling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사업을 실시하여 라오스의 위생 및 검역제도 관련 행정제도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SME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중소기업의 등록 및 시장경제정책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Laos-US International

and ASEAN Integration(LUNA) Project를 통해 라오스·미국 자유무역협정, 라오스의 WTO 가입 및 ASEAN 가입 시 제시한 이행사항의 지원 등을 위한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법률적 지원으로 투명성 확보, 지적권 보장, 전자상거래, 상업적 분쟁해결 등에 관한 적합한 법규범 및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 분야의 자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역시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를 활용하여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Market Economy Project, Supporting Lao Integration into Regional Market Project, Regional Integration of Lao into ASEAN, Trade and Entrepreneurship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라오스의 무역역량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이 지원하는 실크 생산·수출역량 배양사업(Silk project), 스위스 State Secretariat of Economic Affairs(SECD)가 지원하는 관광 분야 역량배양사업(Enhancing Sustainable Tourism, Clean Production and Export Capacity) 등의 AfT 관련 원조사업이 라오스에서 진행되고 있다.¹⁸⁾ 이상의 다자기구나 선진공여국의 라오스에서의 AfT 관련 원조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무역 관련 역량 배양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라오스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무역관련 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제도에 관한 정비가 우선시된다고 이들 기관이나 공여국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오스에 대한 AfT의 분야별 공여액은 [표 3-12]에 제시되어 있는데 2011년 기준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배양에 각각 49.4%와 44.6%가 집행되고 무역정책 및 규제에 전체 원조의 5.6%가 집행되고 있다.

18) World Bank(2012b), Annex 11: Aid-For-Trade in Lao PDR 참조.

표 3-12. 라오스에 대한 AfT 분야별 공여액

(단위: 천 달러, 2011년 경상가격 기준)

AfT 분야	공약액					집행액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무역 정책 및 규제	8,205	8,544	13,493	6,223	7,101	2,105	6,276	4,672	9,521	8,779
경제 인프라	61,926	27,030	56,084	219,662	158,636	68,943	56,533	50,207	79,575	77,403
생산역량 배양	88,091	82,076	42,709	59,778	94,349	79,153	64,202	63,140	71,415	69,885
무역개발	555	4,919	4,623	29,232	9,233	0	7,139	13,262	18,890	12,067
무역관련 조정	0	920	0	0	610	0	854	0	177	565
합계	158,221	118,570	112,286	285,663	260,696	150,201	127,866	118,018	160,688	156,632

자료: OECD Statistics(stats.oecd.org, 검색일: 2013.10.2).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라오스의 무역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본 틀에 해당하는 ‘National Export Strategy’에 따르면 라오스는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분야 및 범분야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점분야로는 전기, 관광, 유기농산물, 광물, 의류, 실크 및 면화수공예, 목재 가공품, 약용작물 및 향신료, 지역 특산물의 아홉 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범분야 이슈로는 수출제품 품질관리, 무역금융, 무역정보 서비스, 경쟁력 개발, 마케팅, 재수출을 위한 수입, 노동인력 수출을 위한 전략초안 마련 등 일곱 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3-13. 라오스의 수출촉진 중점 분야 및 범분야 이슈

수출촉진을 위한 중점 분야	수출촉진을 위한 범분야 이슈
1. Electricity 2. Tourism 3.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4. Mineral products 5. Garments 6. Lao silk and cotton handicraft 7. Wood products 8. Medicinal plants and spices 9. Products from local talent	1. Export quality management 2. Trade finance 3. Trade information services 4. Competitiveness development 5. Marketing 6. Import for re-export 7. Concept note for drafting a strategy on export of Lao labour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2).

또한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전략(Trade SWAP)은 [표 3-13]에서 제시된 수출 촉진 중점 분야 및 범분야 이슈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 분야 및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표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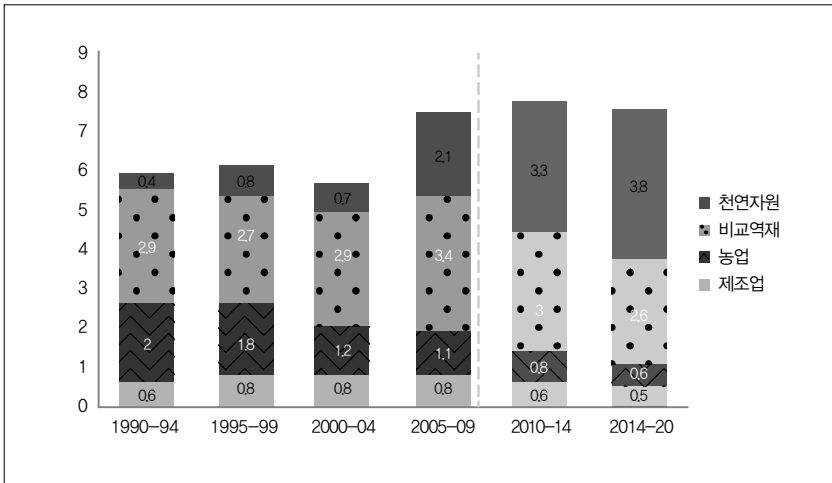
표 3-14. 라오스 Trade SWAP의 구조

분야	조치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통합(Trade Integration) • 경영환경 개선 • 무역원활화 • 고품질의 인프라
농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품질 및 가치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업차원의 품질 및 생산성 지원 수단 도입 • 공공-민간 대화(Public-Private Dialogue) 및 분야특정 지원 수단 도입 • 농산업(Agribusiness) • 관광업 • 섬유(Textile) 및 수공예품(Handicraft) • 의류(Garments) • 목재가공업
무역 및 민간부문의 개발을 주류화하기 위한 A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완화, 양성평등, 환경개선의 주류화 • 제도적 능력 개발 • 분야별 작업반 활성화 및 국가발전계획에서의 무역의 주류화 • 무역 및 A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선 및 적용 •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2), pp. 19-20.

라오스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최빈개도국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라오스는 주변 국가의 역동적인 성장에 필요한 전력 및 자연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경제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86년 라오스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이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는 7.5~8.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천연자원 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고 있다. 천연자원으로 인한 GDP 성장률은 2009년 2.6%포인트에서 2010년 4.8%포인트까지 증가하였고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약 3.3%포인트, 2014년에서 2020년까지는 약 3.8%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2. 수력 및 광업의 성장 기여도



자료: World Bank(2011), 재인용: GiZ(2011), p. 34.

라오스는 2006~10년까지 시행되었던 제6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Sixth National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6)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성과에 따라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DP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안정, 평화 및 안전성의 유지와 원래 목표로 삼았던 연평균 7.5%의 성장을 초과하는 8%의 GDP 성장을 달성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상업적 생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었다. 농업 분야는 매년 3% 성장하여 GDP의 23%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연간 15%의 성장을 추진하여 GDP의 39%, 서비스업은 매년 6.5% 성장 및 GDP의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¹⁹⁾ 1인당 GDP는 1,700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NSEDP7의 목표는 빈곤율을 19%로 감축하고 빈곤가계 비중을 11%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록률을 98%로 증가시키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95%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며 15~24세의 문자 해독률을 99%로 올리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나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는 등 MDGs 달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5. 라오스의 빈곤율 추이

구분	(단위: %)			
	1992	1997	2002	2008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45.0	38.6	33.5	27.6
일일 1.25달러(PPP) 이하 인구 비율	55.7	49.3	44.0	33.9
일일 2달러(PPP) 이하 인구 비율	84.8	79.9	76.9	66.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인용: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p. 13.

19) 분야별 고용비중 목표는 농업 70%, 제조업 7%, 서비스 23%이다.

한편 83% 수준인 대외의존도를 2015년 100%까지 늘리기 위해 수출은 매년 18% 성장시키고 수입은 매년 8% 성장을 추진하여 무역을 촉진하려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World Bank는 2012년도에 작성된 라오스에 관한 기관의 종합원조전략을 기술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 라오스의 NSEDP7의 지원을 위해 World Bank 원조의 제1전략적 목표로 경쟁력 및 연계성(competitiveness and connectivity)의 강화를 선정하고 교역품목 및 교역상대국의 다양화, 민간부문 발전 촉진, 민간부문에 관한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규제프레임워크의 발전 및 기술 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표 3-16. 분야별 실질 GDP 성장기여율

(단위: %)

	자원분야 기여율	비자원분야 기여율	실질 GDP 성장률
2007	-0.2	7.6	7.4
2008	1.9	5.5	7.4
2009	2.6	4.9	7.5
2010	4.8	3.7	8.5
2011	3.5	4.5	8.0
2012	2.1	5.4	7.5
2013-15	2.0	5.5	7.5

자료: World Bank(2012d), p. 3 토대로 저자 재구성.

또한 관광 부문 및 수력발전설비의 증설과 수출로 경제성장과 외부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비자원 부문에 의해서도 중단기의 기간 내 75% 정도의 GDP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비자원 부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며 광범위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자원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직접고용을 창출한다. 자원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주로 외국 소유이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외국으로 송금되어 이로 인해 라오스의 GDP와 GNI 성장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97년에서 2008년까지 0%에서 5%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orld Bank 2011a). 따라서 장기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위해 라오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경제발전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도농간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자원분야는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원분야는 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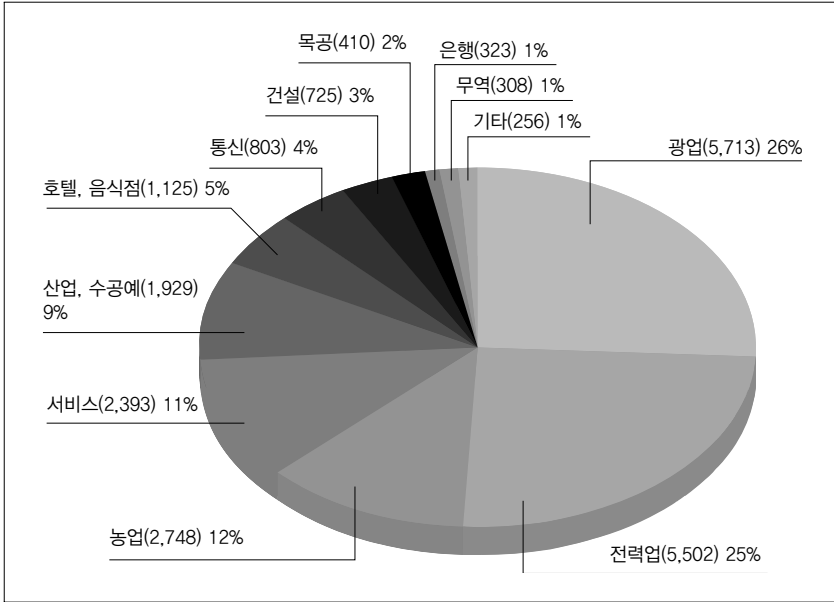
자원분야는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평균 20.7%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자원분야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5.9%에서 2010년에는 16.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GDP 비중은 2000년 43%에서 2010년에는 30%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3-3]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라오스에서 투자의 대부분은 광업, 전력, 농업 및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라오스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출구조의 다변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분야에의 투자가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국가빈곤지수는 1992/93 46.0%에서 2007/08년 27.6%로 감소하였고 2010년 1인당 소득이 1,010달러에 달하며 중소득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율의 감소 이면에는 지역별, 인종별 격차의 심화도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빈곤율은 17% 수준이지만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32%에 달한다.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는 급속한 빈곤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북부지역과 고산지대는 중부와 남부 지역

그림 3-3. 라오스의 분야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1), 재인용: KOTRA(www.globalwindow.org, 검색일: 2013.10.1).

및 저지대에 비해 빈곤수준이 높다. 또한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의 제공 여부는 향후 라오스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라오스는 시장개방과 지역경제 통합에의 참가를 추진하여 왔다. 수출규모는 1990년 9,800만 달러에서 2008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라오스 경제는 국제 무역에서 다른 국가보다 개방률이 낮다. 라오스는 Greater Mekong Subregion(GMS)의 중심에 위치하며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모든 GMS 국가들과 국경을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주변 국가들과 자원 분야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생산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증가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또한 라오스는 ASEAN 회원국으로서 2015년까지 역내무역자유화를 달성하려는 ASEAN의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라오스는 2013년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및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반여건 하에서 라오스 정부의 'landlocked country'에서 'landlinked country'로의 전환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역의 중요성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강조되었다.

또한 라오스는 주변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1990년 후반 이후 무역의존도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98년 84.3%에서 2008년 77.1%로 무역의존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의 외국 수요 의존도와 국내 수요자 및 생산자의 외국자본 의존도는 비교적 낮다.

라오스는 동아시아 지역 중 인구가 적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라오스의 인구는 600만명 정도이며 국토의 크기도 태국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국가와 달리 도시와 지방 간의 이동 압박도 적다. 78.2%의 인구가 15세 이상부터 노동에 참여하여 노동력 비율이 높지만 노동력의 밀도는 낮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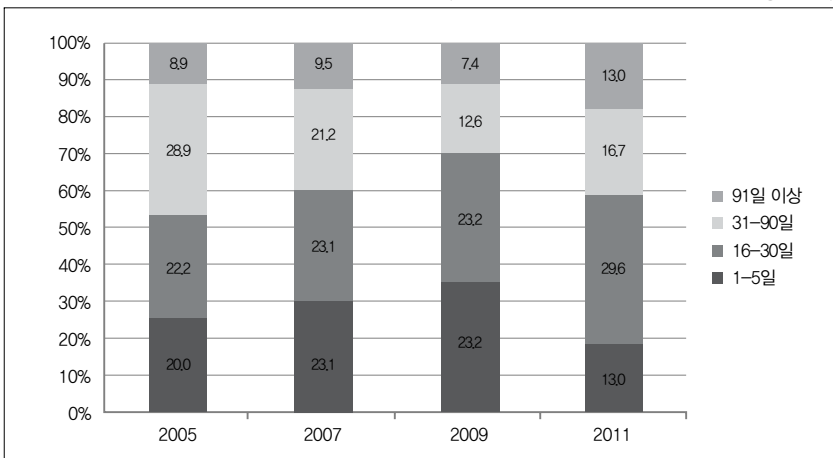
자원 및 비자원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1억 1,0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 중 80% 정도는 수력발전 및 광산에 대한 투자이다. 주요 투자국은 태국, 중국 및 베트남, 프랑스, 호주 등이며 한국도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금액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으나 비자원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비자원 부문(농업, 간단한 제조업, 가공공업, 서비스)의 FDI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38.5%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원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비자원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59%에서 2010년 17%로 감소하였다. 민간 국내 투자는 GDP의 약 5.3%이고 FDI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는 비자원 부문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민간 투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낮은 국내투자율과 비자원 부문의 저조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게 한다. 따라서 라오스 경제의 주요 쟁점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민간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제약을 구분하여 제거하도록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라오스 투자환경 평가를 위해 투자환경 조사를 2011년에 실시하였는데 이 투자환경 조사는 143개의 제조업, 217개의 무역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하는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표적인 투자환경지수로 사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의 변동추이는 [그림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에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보였다.

그림 3-4. 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최근 3년간 개업한 사업주들이 신고한 등록기간)



자료: GIZ(2012), p. 108.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스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본수지는 광업 및 수력개발을 위한 것이어서 라오스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의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역개발 분야는 라오스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대라오스 무역개발협력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수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라오스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NES) for the period of 2011-2015)을 살펴보면 라오스는 전 국토의 80%가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과 천연자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홉 개 수출산업과 일곱 개 범부문전략(cross-sectorial strategies)을 선정하였다.

아홉 개 수출산업으로는 ① 전력(수력발전) ② 관광 ③ 유기농산물 ④ 광물 ⑤ 의류 ⑥ 실크 및 면화 수공업품 ⑦ 목제품 ⑧ 약용 작물 ⑨ 지역 특산물(One District, One Product)이 선정되었고, 수출촉진을 위한 일곱 개 범부문전략으로는 ① 수출품질 관리 ② 무역금융 ③ 무역정보 서비스 ④ 경쟁력 강화 ⑤ 마케팅 ⑥ 재수출을 위한 수입전략 ⑦ 라오스 인력수출 전략 등이 채택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전략수행을 위해 ① 작업계획(work plan) ② 인적자원 조달계획 ③ 재정계획 ④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한 목표 지향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라오스 주력 수출산업의 하나인 전력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한계생산가치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고용효과 역시 크지 않다. 또한 인프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은 도로, 숙박 등의 인프라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유기농산품은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품질인증 등의 문제가 있어 라오스의 현재 가공기술이나 해외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해외시장의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물은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미 많은 다국적기업이나 선진국의 진출이 이루어져 한국의 원조규모를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실크 및 면화 수공업품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는 있으나 제품의 성격상 수출시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제품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의 수출산업화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약용작물이나 지역 특산물도 수출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개발경험을 보유하고 고용창출효과와 친빈곤층(pro-poor) 성격을 지닌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류산업을 한국의 무역 관련 개발원조 분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라오스 국가수출전략의 일곱 개 범분야 중에서는 무역금융과 수출촉진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개발경험의 비교우위가 있어서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경험전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은행이 라오스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한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DTIS)에는 수출경쟁력 확보, 무역원활화 추진, 경영환경 개선, 무역정책 및 무역협정을 통한 세계시장에의 진출확대와

빈곤층의 무역기회 창출이 강조되는데, 의류, 무역금융, 수출촉진 서비스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여 원조조화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세부 분야로 선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원조의 분야로 선정된 세계 분야에 대해 라오스의 현황 및 한국의 경험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원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라오스 의류산업은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수출과 관련하여 의류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의류산업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들은 라오스에서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라오스에 대해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이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무역을 위한 원조(AfT)’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여국들의 지원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DTIS(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에도 수출확대를 위한 민간부문 역량강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독일 등 주요 공여국 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TDF(Trade Development Facility)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도 이 분야에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라오스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원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은 이 사업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단계부터 라오스의 노동시장 현황과 산업계의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간 약속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직업훈련원 건물을 지어준 정도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립된 직업훈련원 시설을 활용하면서 타 공여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라오스의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와 KOICA의 직업훈련원 건립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2005년 다자간 섬유협정(MFA) 종료 이후 라오스의 의류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라오스 의류 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수출금액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1년의 경우 의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감소하여, 광물(구리, 금), 목제품, 전력에 이어 4위 수출품이 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의류부문의 수출이 다시 증가하여 수출비중이 10%(2억 7,000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표 4-1. 라오스 의류부문 수출금액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의류수출 금액	100,139	107,582	247,971	219,813	274,542
의류수출 비중	30,8	23,6	12,0	7,6	10,0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www.moic.gov.la, 검색일: 2013.4.6).

2011년 라오스 의류생산업자들은 여전히 공급 여력의 부족으로 해외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수요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저가제품에 대한 국제적 경쟁 심화로 현재도 낮은 임금수준을 더 낮춰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예견된다.

라오스 의류산업은 광물 등 다른 수출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여지가 매우 큰 산업이고,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 높은 운송비용과 오랜 리드타임(lead time: 발주에서 배달까지의 시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⁰⁾ 또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나 소유구조(내국기업/외국투자기업)에 관계없이 라오스 의류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다.

20)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운송비용이 45% 정도 더 들고, 운송기간도 두 배 정도 소요된다. 의류제품은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드타임이 30~45일 정도인 것에 비해 라오스의 리드타임은 70일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유사한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의 리드타임이 90~12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리드타임 자체가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라오스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는 관광산업과 같이 빠른 성장을 하는 산업과의 경쟁, 태국의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지급, 의류산업 근로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라오스의 의류수출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의 25.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였다. 또한, 인력, 특히 여성인력의 고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여성인력 일자리를 3만 개 창출).

국가수출전략(NES)²¹⁾에서는 의류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다.

-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시장의 유지
-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경험과 교훈을 적용
- 저가의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의류시장 재분석
- 설비 현대화
- 면화재배 확대
- 공공, 민간, 국제기구 공동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센터 확보

라오스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

21)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0).

민간부문, 공여국, 수출업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수출촉진위원회(NEPC: National Export Promotion Council)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NEPC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LNCCI(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차이가 있다. 즉, NEPC는 NES를 주관하고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²²⁾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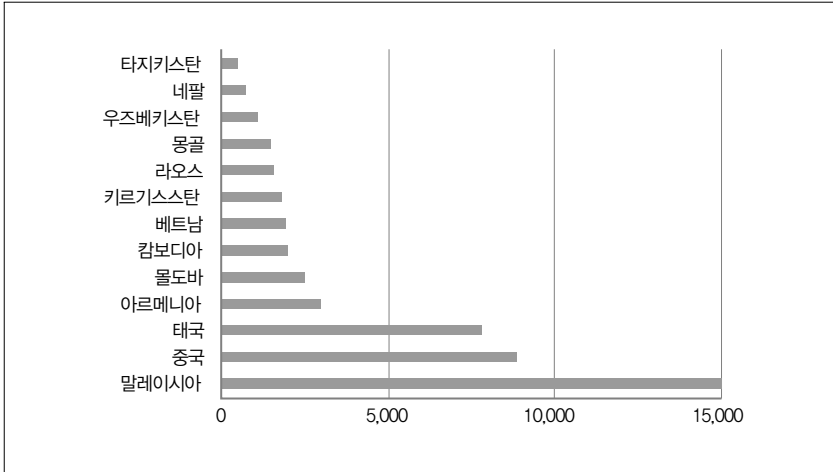
라오스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300만 명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화율이 27%에 그쳐 비농업 경제활동인구가 65만 명(2010년 기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농업 경제활동인구 중 26만 명 정도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5만 명 정도가 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류업은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라오스는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더하여 노동생산성도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물론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비해서도 노동생산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1 참조).

22) 라오스 의류산업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World Bank(2012e)의 설문조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그림 4-1.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

(단위: 2005년 달러)



자료: World Bank(2009).

2006년 라오스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의 조사결과에서도 라오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0.12달러로 중국의 0.68달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국의 5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이 비교우위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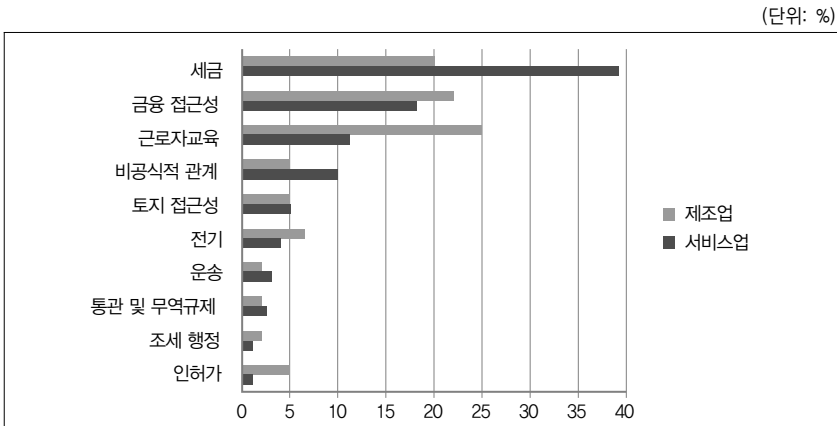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라오스는 오히려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내수기업보다 낮다. 또한, 라오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²³⁾

23) 이는 2009년 Lao Enterprise Survey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기업규모별, 소유구조별 생산성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광물과 전력 등 자연자원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화란병(Dutch disease)' 증상이 나타난 것과 수출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거의 없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라오스 의류산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전체평균 노동생산성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앞서 언급한 전반적 이유 이외에도 라오스 의류산업 관리자와 근로자가 느끼는 의류산업의 발전 저해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²⁴⁾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계에서는 높은 세금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근로자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업은 높은 세금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반면, 제조업은 근로자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림 4-2. 기업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World Bank(2009).

24) 설문조사는 2009년 세계은행이 투자환경평가(Investment Climate Assessment)를 위해 시행한 'Enterprise Survey'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1년 시행한 Lao Garment Sector Survey(LGSS)에 따르면 라오스의 의류산업에서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기업의 수는 전체 의류업체의 10%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한편 중기업의 고용비중은 43%, 소기업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생산의 85%를 직접 수출하는 반면, 중기업은 70%, 소기업은 10% 정도만 직접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은 하청 등을 통해 간접 수출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라오스 의류제품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출지역은 EU가 62%, 미국·캐나다 18%, 일본 12%, 태국 4%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EU 비중이 줄고, 일본 비중이 증가하였다.²⁶⁾

의류기업의 소유구조는 소기업은 대부분 라오스인 소유이지만 대기업 대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합작투자 형태이고, 중기업은 그 중간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는 태국(50%), 일본(20%), 호주(1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의류산업 근로자의 85%가 여성이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숙련 단순노동자이고 관리직과 숙련직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문직이나 기술직의 남성비중이 큰

25) 2011년 Lao Garment Sector Survey는 1만 9,540명을 고용하는 89개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동 설문조사에서 5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대기업(9개)으로, 100~499명 사이를 고용한 기업은 중기업(33개)으로,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은 소기업(47개)으로 분류하였다. 답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은 소기업 6만 7,000달러, 중기업 64만 달러, 대기업 680만 달러로 나타났다.

26) EU는 라오스에 대해 ‘Everything But Arms’ Agreement를 체결하여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2005년 라오스와 ‘Normal Trade Relation(NTR)’ 관계를 수립한 이후 라오스의 수출비중이 늘고는 있으나, 소규모로 영세한 라오스 의류제품이 미국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장기근속자가 적고 대우 또한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주로 수도인 비엔티안) 이주해 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2012년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78달러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⁷⁾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은 베트남(75달러), 캄보디아(68달러), 방글라데시(61달러), 미얀마(50달러)보다 높다. 근로자의 상당수가 농촌지역에서 상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다 높은 임금과 생활여건을 위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은 후 이직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규모 이상의 기업은 신입근로자를 채용하면 재단, 봉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은 현장근무를 통한 훈련(on the job training) 형태로 가르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관리와 재무, 행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한다.

27) 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근로자는 월 46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대기업의 숙련·준숙련 근로자는 월 71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연령별, 성별 의류산업 근로자의 직업군별 분포(비숙련직 제외)

(단위: %)

직업군	14~17 세			18~25세			26~40세			40세 이상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전문직·기술직 (매니저, 회계사, 엔지니어, 기술자 등)	0.3	0.0	0.2	9.9	12.9	13.0	62.8	72.6	67.8	27.0	14.5	18.9
숙련 기술직 (재단사, 재봉사 등)	0.5	2.0	1.7	51.1	50.9	50.7	38.3	42.3	42.3	10.1	4.8	5.7

자료: World Bank(2011c), p. 19 토대로 저자 재구성.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 바느질 등 생산기술과 기본적인 학습능력(언어, 산술 등) 제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규모기업은 생산관리자의 생산관리기술(line balancing 등)과 품질관리 능력제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은 팀 관리와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5시간, 대기업은 59.3시간으로 나타나 법정 근로시간인 45시간을 훨씬 초과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이 가장 큰 이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오스는 1999년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인 이상 고용기업은 제도적으로는 의료비, 병가, 퇴직연금, 생명보험, 출산휴가, 산재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낮고 재원조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도는 매우 낮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위낙 낮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매우 높고, 급여의 5%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다.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²⁸⁾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Lao Garment Service Center) 건립사업은 Trade Development Facility(TDF)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라오스 내에서 의류산업의 수출비중과 고용비중 등을 감안하면 라오스 수출증진을 위해서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의류 부문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류서비스센터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 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센터는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아닌 관리자급(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류업계의 참여자들이 교육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한 점이 특징적이다.

TDF의 지원규모는 55만 8,800달러이고 사업파트너의 출연금액은 71만

28) 본 절은 World Bank의 TDF 1에 대한 종료평가보고서인 World Bank(2013b)와 라오스 통상산업부의 동 센터에 대한 보고서인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3)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8,000달러였다. 라오스 의류산업협회(ALGI: The Association of Lao Garment Industries)가 공동시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센터 설립 이후 2년 정도 시행 기간이 경과하면 라오스 ALGI 측에 센터 소유권과 운영 일체를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사업개시는 2009년 1월).

TDF는 National Integrated Framework Governance Structure(NIFGS) 설립을 지원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무역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라오스 정부가 국가발전계획(Nati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빈곤감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괄적 결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 세관행정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역환경 개선
- 제도와 규제 개선
- 무역 관련 부처의 역량 배양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 역량 강화
- 보다 효과적인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 참여
- 라오스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빈곤감축에 기여

이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사업 내용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고, 단기적으로는 ‘120개 이상의 의류업체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류서비스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오스 의류산업은 현재 경쟁력 약화로 침체상태이지만, 수출비중과 고용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기존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수요에 입각해 판단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간관리층 이상의 능력배양이다. 이를 위해 의류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의류서비스 센터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임의적인(ad hoc) 직업교육훈련은 다수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시도도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의류산업에 양질의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혜자 부담'이다.

라오스 의류업 생산직 근로자의 이직률은 매년 50~60%에 달한다. 그러나 의류업체 사업주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느끼는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직의 높은 이직률이 아니라 관리자(supervisor) 계층의 역량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관리하려면 라오스는 20명의 외국인 관리자가 필요한데, 베트남에서는 2,500명의 생산직 근로자 관리를 위해 두 명의 외국인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관리계층 이상의 관리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라오스 의류업 관리자 계층의 수준을 감안할 때 24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라인에 한 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오스 전체적으로는 최소 3,000명 이상의 관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리자계층의 이직률은 연간 3~8% 수준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의류산업 생산성 제고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류업 사업주는 관리자급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훈련시간도 오후나 저녁으로 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관리자에 대해 적절한 교육환경과 대우가 취해지기를 원한다. 아울러 엄격한 교육을 통해 수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소정의 수료증(certIFICATE)을 수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구성요소(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다.

- 구성요소 1: 서비스 수요평가와 사업계획 → 세부적인 교육수요 파악, 교사훈련(training for trainer)
- 구성요소 2: 능력 배양 → 내국인 관리자 능력배양을 통해 적기에 경제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기를 원함. 경험 있는 현직 종사자들을 강사진으로 활용
- 구성요소 3: 서비스 이행(Service Product Delivery) → 교육 장소, 교육 시간, 인원, 모듈 등에 관한 세부 내용
- 구성요소 4: 센터 관리 시스템 → 센터 건립 후 3년 내에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교육 참여 기업의 교육 전후 성과 비교. 매년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의류산업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 등이 이미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 매년 30~40명, 일본은 매년 75명 정도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상 그룹은 주로 농촌에서 상경한 생산직 여성 소외계층이었다. 기존에 설립된 이러한 직업훈련센터와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고, 실제 업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심 계층이 아닌 생산직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 등 기존의 직업훈련센터가 장기교육과정 중심인 반면 이 센터는 단기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기존 센터가 직업훈련 중심인 반면 이 센터는 업그레이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라. 사업 시행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건립사업은 라오스 의류산업협회(ALGI)²⁹⁾가 사업 주체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성과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이 센터의 서비스가 의류기업의 실적에 미친 영향, 둘째, 훈련센터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29) ALGI는 1995년 설립된 이후 2009년 현재 58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고, 회원사로부터 기계 한 대 당 1달러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13,000~14,000달러 정도의 회비를 거두고 있다. ALGI는 회원사에 대해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관련 업무 지원, 세금 관련 자문, 정부와의 대화채널 구축, 해외 훈련 장학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4-3. 주요 산출물과 평가지표

구분	산출물(output)	영향(impact)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00~400명의 중간관리자 교육 • 연간 최소 5건의 기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20% 이상을 교육에 파견한 의류기업의 노동생산성 20% 증가
		<p>세부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리기법, 생산시스템 도입 • 작업라인 생산성 • 가동중단을 감소 정도 • 근로자 결근 감소 정도 • 제품 불량률 감소 정도
센터	구성요소 1(수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 세부 운영계획 • 연간 자금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센터의 수입과 목표 산출물 달성 정도
	구성요소 2(역량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의 교육받은 강사 • 5~6개 정도의 라오스어로 된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개의 훈련 과정 개설 • 교육이수자의 높은 만족도
	구성요소 3(서비스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400 명의 의류업 근로자 훈련 • 연간 5~6개의 기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만~8만 달러 센터 수입
구성요소 4(센터 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개의 영향평가보고서 • 연간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연 10% 증가 • 센터의 균형 운영수지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3), p. 10.

이 사업의 위험요인으로서 첫 번째는 의류업체의 수강료 지불 의사이다. 과거에도 임의적인 직업훈련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력 강화문제를 개별회사 차원에서 대처했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시장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의류업체 사장들을 대상으로 적정 수강료 수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1일 8시간 교육에 대해 15~20달러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ALGI의 회원사 참여의사 조사 결과 최소 200명의 중간관리자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의류업체에서 자사 소속 관리자를 강사로 파견해 줄 의사이다. 센터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류업체 현직 관리자를 단기강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사 소속 직원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강사로 파견해 줄지 불확실하다.

조사 결과 의류업체 사업주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또는 저녁에 강의지원을 하고, 강의시간도 길지 않을 것과 파견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에서 직원 파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20개의 강의를 운영할 경우 한 강의당 두 명씩 최소 40명 정도의 현직 관리자 강사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규모 기업의 참여 정도 또한 중요하다. 대기업은 관리자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지만 소기업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기업 참여자 100명 정도에게 교육비의 50% 수준을 장학금 형태로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위험요인은 센터의 운영비용 충당 가능성이다.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센터가 시장가격 수준의 수강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LGI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초빙한 해외전문가에게 1인당 월 500~800달러 정도의 매칭자금을 지원하고, 200명 수용이 가능한 수업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ALGI와 민간부문의 이 센터에 대한 오너십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

된다.³⁰⁾ 당초 개원 후 2년 뒤에는 재정적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회원사의 회비를 받는 ALGI의 자체수입원이 있고,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상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사업예산 분담 내역은 [표 4-4]와 같다.

표 4-4. 사업예산 분담내역

(단위: 달러, %)

자금출연기관	금액(달러)	비중(%)
Trade Development Facility	558,400	43.7
ALGI	60,400	4.7
CIM	400,000	31.4
의류업체	258,000	20.2
합계	1,276,800	100.0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3), p. 13.

마. 진행상황 평가

TDF(Trade Development Facility) 1기 자금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던 의류서비스센터(Garment Service Center)는 2011년 11월 의류기술개발센터(GSC: Garment Skills Development Cente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년 라오스 의류산업 근로자는 3만 명에 달하는데, ALGI는 의류수출 증진을 위해 고용을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0) 해외전문가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지역에서 국제의류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CIM(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의 전문 인력을 초빙하였다.

현재 의류산업 전체 근로자의 86%가 여성이다.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길어지고 교과과정 개발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센터 설립이 지연되어 2011년 중반에 센터가 출범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CIM(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있었고, 독일정부가 2012년 5월 신형 재봉기계를 기증하였다. 현재 GSC의 훈련프로그램은 관리자 훈련프로그램과 재봉기계 사용훈련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1) 적절성(relevance): GSC가 의류수출 부문의 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최근 라오스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8.2%의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수출은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EU에서 라오스 의류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01년 0.27%에서 2011년 0.17%로 감소하였다. 라오스 의류 부문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긴 리드타임 등이 경쟁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낮은 노동생산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이 생산기술(재단, 바느질 등)과 기본적인 문자해독·수리능력을 생산직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은 중간관리층의 관리능력과 품질관리능력 제고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GSC가 관리자층의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라오스 의류업계와 정부의 목표에 매우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된다. 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지속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2) 효과성(effectiveness): GSC가 원하는 산출물과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나?

2011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홈페이지(<http://laodev.org>)를 통해 센터의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네트워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훈련프로그램과 달리 수요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의류업계에서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중간관리계층의 능력배양이 의류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ASEAN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AFTEX)와 라오스 의류산업협회(ALGI)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의류산업의 직무능력(job competency) 표준을 확립하고, 엄격한 자격시험과 수수료증을 발급해 센터 훈련과정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쌓아가고 있다.

3) 효율성(efficiency): GSC가 의류수출 부문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 도구인가?

의류업계 최고경영진은 GSC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사의 관리자들이 경쟁사로 이직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오스 전체 의류업체의 관리자계층 가운데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오스 의류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라오스 의류업체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간 협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자층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의 기업은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GSC를 통해 교육을 받은 관리계층은 쉽지는 않지만 소속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4) 영향(impact): GSC가 의류수출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GSC가 실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TDF 2기 출범 이후에도 GSC의 서비스 제공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생산성 향상 정도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SC의 분석에 따르면(www.laosaft.org) 2011년 시작된 시범프로그램의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들은 전원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했고, 의류 분야 자격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 이수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회사들도 자사 관리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프로그램 이수 후 관리자들의 실적이 평균적으로 43%, 소속기업의 생산성이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¹⁾

5) 지속성(sustainability): GSC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2012년 4월 센터 운영책임자직을 CIM 측이 라오스 측에 인계하여 오너십을 강화하였다.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단계부터 수강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류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된다면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근로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업주

31) “GSC, Garment Skills Development Centre - Professional Training with Heart” 기사에 따르면 GSC의 성공요인으로 강사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들고 있다(<http://laosaft.org/index.php/en/the-news/115-gsc-garment-skills-development-centre-professional-training-with-heart>, 검색일: 2013.8.10)

입장에서는 아직 자사 관리자의 교육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TDF 2기(2011~15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재정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DF 2기에서는 GSC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운영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특별법에 근거한 노동 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산하의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³²⁾ TDF 2기에서는 오버헤드 비용(핵심 임직원 인건비, 임대료, 행정비용 등) 40만 달러를 4년간 지원하고, 그 기간에 자생적 수입 구조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글상자 4-1. TDF의 라오스 의류기술훈련센터 지원 사업

2차 무역개발금융(TDF-2)은 라오스 민간부문개발과 무역촉진을 위해 호주, EU, 독일, 아일랜드,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자공여 프로그램이다. 라오스 산업통상부의 국가실행단위(National Implementation Unit: NIU)에 의해 시행되는 TDF-2의 목적은 2012 DTIS(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 향후 추진계획에 명기된 무역과 경제통합의 우선순위 분야를 추진하고 자연자원 이외의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TDF 사업 중 의류기술훈련센터 지원 사업은 세계은행이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협회가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의류기술훈련센터(GSC)는 2011년부터 훈련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450명의 자격을 갖춘 의류산업 인력을 배출하였다. 이 센터는 기술교육훈련뿐 아니라 비즈니스상담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의류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술훈련을 통해 의류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Laos Aid for Trade(www.laosaft.org, 검색일: 2013,8,21) 토대로 저자 작성.

32) 정부는 프로젝트 수준에서 GSC를 관리하는 데서 탈피하여 GSC 감독이사회를 만들어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World Bank 2012b).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한국은 2001년 ASEAN+3 회의 시 한국·라오스 정상회의에서 라오스 측이 요청한 직업훈련원 건립지원을 받아들여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라오스 총리회담에서 200만 달러 규모의 직업훈련원 건립을 약속하였다.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 직업훈련원이 완공되어 다섯 개의 공과가 설치되었다.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를 목표로 수립된 ‘국가빈곤퇴치계획(NPEP: National Poverty Eradication Program)’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 중 하나가 인적자원개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 훈련원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세 개 훈련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설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은 라오스의 숙련기능인력 양성과 기능자격 검정제도 정립 및 기술훈련 학습과정 정립, 숙련공 양성을 통한 외국 인력의 수입대체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훈련교재와 수준을 표준화하여 훈련과정에 적용하는 직무능력 표준제도를 훈련원에서 자체개발하였다. 이는 라오스 직업훈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교적 학력이 양호한 23명의 훈련교사를 선발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태국 교재를 라오스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전통산업 부문은 물론 라오스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고려하여 자동차, 전기, 전자 직종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4-5.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개요

국명	라오스	분야	교육사회
1.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Establishment of the Korea-Lao Vocational Training Center 		
2. 사업기간 및 사업비(US\$)	○ 2002~2005(4년) / 2,000천불		
3. 사업지역	○ Chanthaboury district, Vientiane		
5.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훈련 건축 및 최신 실습장비 지원 ○ 수원국 숙련 기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취업을 증가 ○ 기능자격 검정제도 및 기술훈련 학습과정 정립 		
6. 수혜대상자	○ 비엔티안시와 지방거주 미취업 청소년, 고용 근로자 및 직업훈련 교사		
7. 투입	수원국측		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제공 ○ 기자재운송(국내) 및 보관 ○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기본 인프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원건축: 178,491천원+1,168천불 ○ 기자재지원: 45,000천원+16,520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공과 정비, 자동차 등 ○ 장관일행 방한 초청: 21,23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일*명*1회 ○ PMC 용역: 154,22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파견: 59,651천원(4MM) - 연수생초청: 90,248천원(370MD) - 사업관리 및 자문: 4,324천원 ○ 사업관리비: 54천불
	합계: 약 305천불		합계: 약 2,000천불
8.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직업훈련원 건립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시설 확대 ○ 기능검정제도의 체계화 및 훈련교사 양성 ○ 숙련공 양성을 통한 외국 인력의 수입 대체 및 기술 인력의 수출 증대 		
9. 원조총괄기관 (수원국)	○ 국가기획협력위원회		
10. 사업실시기관 (수원국)	○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Social Welfar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7), p. 2.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인 KOICA 현지사무소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현지 훈련원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³⁾ 우수한 훈련장비와 교사, 저렴한 수업료는 이 훈련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했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라오스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했다.

표 4-6. 수준별 훈련기준

교육수준	자격	기술수준	기간
중등교육 이상	중급1	기술자 4 수준	2~3년
중등교육 이하	초급3	기능수준 3단계	12~18개월
중등교육 이하	초급2	기능수준 2단계	6~12개월
중등교육 이하	초급1	기능수준 1단계	3~6개월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7), p. 8 토대로 저자 재구성.

나. 사업 평가

이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라오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라오스 산업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직업훈련 분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인력양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이 훈련받은 내용을 토대로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3) 한국국제협력단(2007).

1) 수혜대상계층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

출범단계에서는 라오스 정부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얻었지만 수요조사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수혜대상계층이 불명확했다. 즉 목표그룹(Target Group)이 명확히 정해지지 못하였다. 훈련 분야에 대한 업계의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자생적 재정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 훈련원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보다 많은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예산규모를 늘리는 대신 기관당 지원 금액을 줄이고 지원기관 수를 늘렸다. 그 결과 이 직업훈련원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지원이 2005년 8억 킵(kip)에서 2006년 8,000만 킵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 정도 정부지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훈련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KOICA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 수업료를 받기는 하지만 시장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수업료만으로는 경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3)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약속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훈련원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직업훈련 소프트웨어 측면과

훈련생들의 성과 등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즉, 기본적인 원조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디자인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타 원조기관과 원조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세계은행, 독일, 호주 등이 참여하는 TDF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타공여기관과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지 못하였다.

5) 사업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TDF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GSC와 비교해도 원조규모 자체는 더 크다. 그러나 건물과 기자재 공급이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훈련생 수를 포함하여 수원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TDF 사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TDF 사업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이 직업훈련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라오스에 후속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TDF를 통한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크다.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오스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라오스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 의류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오스 노동시장은 기업의 기술노동력 수요에 대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부족해 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B는 2010년부터 TVET 강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³⁴⁾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라오스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평가 결과 라오스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인프라의 역할 ② 국가간 노동의 흐름 ③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이 꼽혔다. 또한 노동시장평가는 각 경제 분야의 현재 및 잠재적 노동시장수요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라오스는 내륙국가이고 경제발전단계가 낮기 때문에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GD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시점에서 고용도 증가하였다. 참고할 만한 노동시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 ADB(2010).

첫째, 숙련된 노동자의 필요성은 늘고 있으나 중요한 개발 분야에서는 해외 숙련노동자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건설 또는 가구 부문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선호). 남부와 북부 지방에서 특히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에 대해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할 의사가 있고 숙련노동자를 뽑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비숙련노동자는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급여가 높지 않았다. 이는 자격증의 중요성보다 숙련도의 수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TVET 시스템을 통해 일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자격증 소지 여부가 숙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존의 TVET 시스템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은 TVET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TVET 졸업생들이 사업체에서 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VET 기관에서 제공되는 훈련은 이론적이며 TVET 교사는 현장 경험이나 실질적인 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직업 상담이나 정보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지속되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취업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TVET 커리큘럼 개발 참여와 TVET 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ADB의 조사 결과는 ① TVET 질의 향상 ② TVET 접근성 향상 ③

TVET 전략 및 전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증가 ④ TVET 시스템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⑤ 효과적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을 강조하였다.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라오스 TVET 시스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중심인데 주로 비즈니스, IT,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표 4-7. 라오스 TVET 현황(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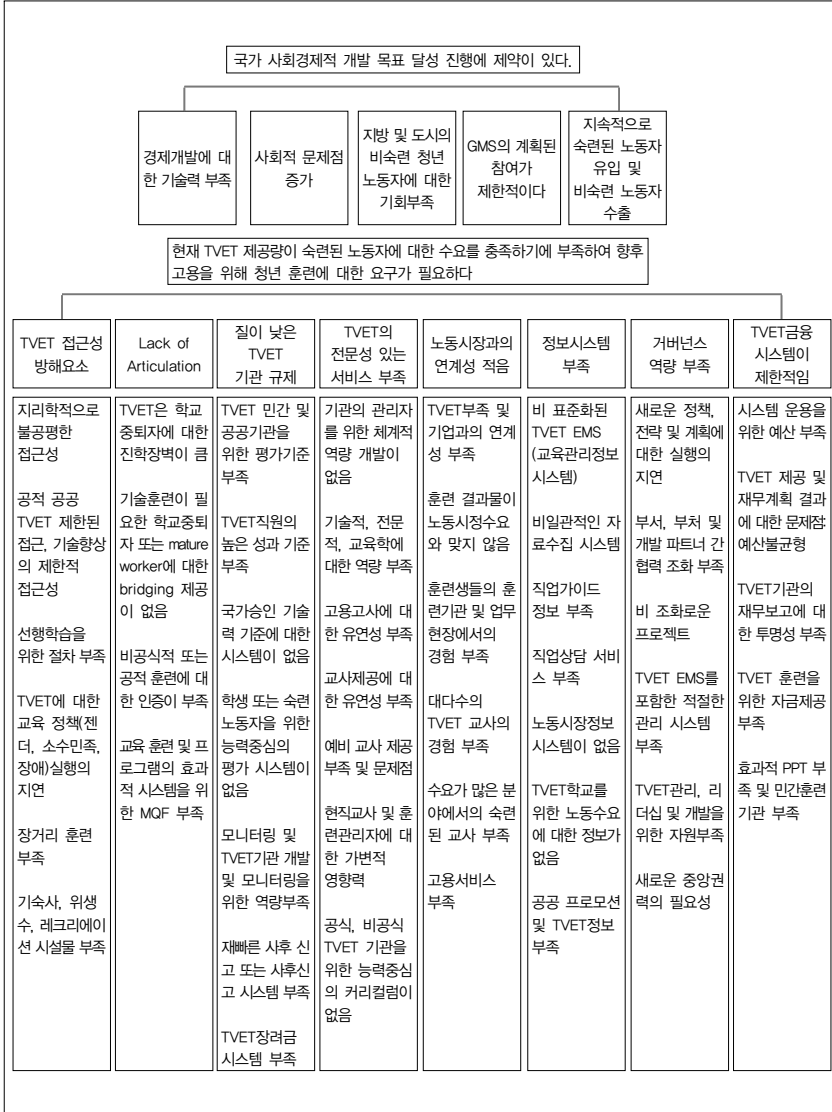
(단위: 명, %)

TVET 기관	훈련받는 인원수	여성 비율
공식적 TVET 프로그램: 교육부	18,000	40
공식적 TVET 프로그램: 기타 정부기관(TVET 대학포함)	9,000	-
공식적 TVET 프로그램: 민간부문	20,000	-
비공식적 훈련기관	4,200	-
총 훈련자 인원수	51,200	-

자료: ADB(2010)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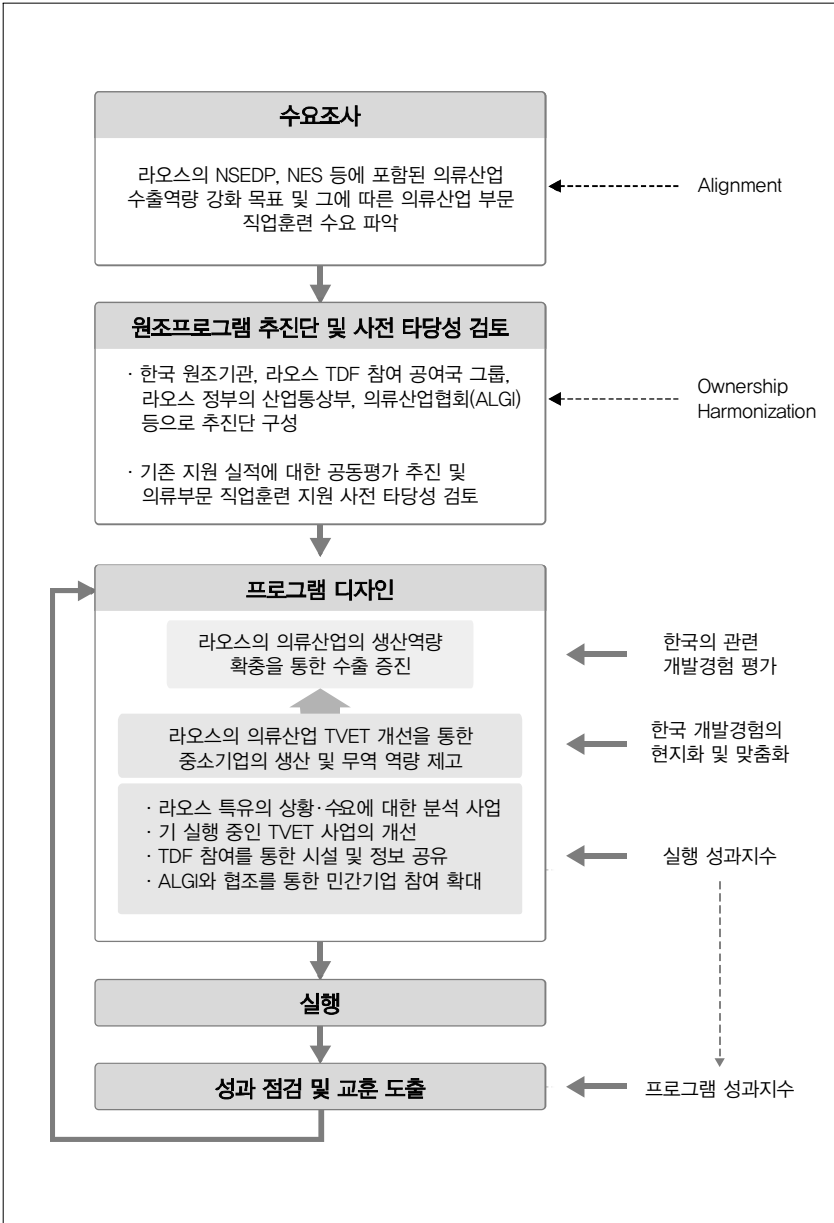
라오스 TVET 시스템 문제의 핵심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기업 등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이다. 그 밖에도 능력중심 프로그램 부족, 현대적 교육자료 및 교사 인력 부족, TVET 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과 평가 및 전문적 행정 지원 부족, 국가자격체계의 미비 등의 제약요인이 있다. [그림 4-3]은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라오스 TVET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림 4-3. 라오스 TVET 문제(Problem Tree) 분석



자료: ADB(2010).

그림 4-4. 라오스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ET AfT 프로그램 흐름도



자료: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 기초로 저자 재구성.

이러한 라오스 TVET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라오스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ET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림 4-4]와 같은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 기존에 설립한 직업훈련원은 라오스의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지원 없이 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지원 분야를 의류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기능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TDF 담당자와 면담 결과 한국의 TDF 참여가 의류기술개발센터(GSC)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TDF 참여는 한국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라오스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이미 실시되는 TVET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원조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발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의류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TVET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한국이 이 분야의 원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한 세계은행 등 여러 공여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TDF의 내용과 추진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결과평가들과 위험관리 방안은 ADB(2010)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부록 1, 부록 2). 결과평가들은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goal)와 결과(outcome), 산출물(output) 간의 인과관계가 결과평가들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기준치 대비 성과목표가 적절한 지표(indicator)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라오스 의류산업과 TVET의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DF를 통한 라오스 의류기술훈련센터(GSC) 사례와 ADB의 TVET 지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TVET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 어떤 계층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목표그룹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기술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오스 TVET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ADB 등에 의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TDF 참여를 통한 시설과 정보 공유,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수출금융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활용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Baldwin(1970), Hufbauer and Erb(1984), de Meza(1989) 등 수출금융을 수출보조금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다수 있다. 그 이유는 수출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여 국제시장 및 국내시장에서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Evans and Oye(2001)와 같이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수출에 대한 적절한 금융조달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출금융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경쟁국이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한국은 1961년 이후 수출 관련 활동의 다양한 단계에서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출우대금융,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우대환율, 수출·수입연계제도, 주요 수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 등을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출업자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는 정부에 의한 대출 보증으로 유동성 제약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출금융 체계는 한국정부가 제공한 중요한 수출촉진 조치 중의 하나였다.

한국은 금융위기 기간인 1998~99년 동안 수출금융에 평균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평균 3%대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이는 1999년 평균 일반 대출

금리 8.5~20%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어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5-1]은 한국의 개발연대의 수출금융의 규모를 보여준다. 1970년대 초반에는 수출금융이 총수출의 70%에 달하며 이는 1975년에는 91%까지 증가하였고 총여신에서 수출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39%로 증가하는 등 한국의 수출금융은 한국의 수출촉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총대출 중 수출금융의 비율

(단위: 백만 원, %)

연도	총통화공급(A)	총수출(B)	총대출(C)	단기수출금융(D)	D/A	D/B	D/C
1970	3,076.0	835.2	7,224.0	558.6	18.16	66.88	7.73
1971	3,580.0	1,067.6	9,195.0	801.5	22.39	75.12	8.72
1972	5,194.0	1,624.1	11,980.0	1,069.0	20.58	65.82	8.92
1973	7,303.0	3,225.0	15,875.0	2,223.0	30.44	68.93	14.00
1974	9,457.0	4,460.4	24,278.0	3,595.0	38.01	80.60	14.81
1975	11,817.0	5,081.0	29,055.0	4,630.0	39.18	91.12	15.94
1976.6	12,583.0	3,425.0	34,043.0	5,983.0	47.55	173.72	17.57

자료: 대한상공회의소(1977), 재인용: 한국개발연구원(2012), p. 283.

또한 [표 5-2]에서는 한국의 일반 금융과 수출 금융 간의 대출 금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기업은 일반대출 금리보다 최소 6.5%포인트, 최대 18%포인트에 상당하는 금리의 혜택을 받았고 이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기업의 수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5-2. 일반금융과 수출금융 간 대출금리 비교

(단위: %)

연말	수출금융(A)		일반금융(B)		(B-A)	
	일반상업은행	한국은행	일반상업은행	한국은행	일반상업은행	한국은행
1970	6.00	3.50	24.00	19.00	18.00	14.50
1971	6.00	3.50	22.00	16.00	16.00	12.50
1972	6.00	3.50	15.50	11.00	9.50	7.50
1973	7.00	3.50	15.50	11.00	8.50	7.50
1974	9.00	3.50	15.50	11.00	6.50	7.50
1975	8.00	3.50	18.00	14.00	9.00	9.50
1976.9	8.00	3.50	18.00	14.00	9.00	9.5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1977), 재인용: 한국개발연구원(2012), p. 283.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한국은 1967년 GATT 체제 도입과 1995년의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 지원책을 폐지하고 WTO 체제에서 인정하는 수출보험 및 연불신용 등을 비롯한 원활한 수출 관련 무역금융의 제공 등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이 적용하는 수출신용은 WTO 체제에서 인정되는 공적지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에서 이러한 지원을 시행한다. 수출신용을 통해 수출업자는 수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수출신용에는 대출, 보험, 보증 등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보증 및 이차보전제도를 제공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을 제공한다.

가. 수출금융제도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금융제도 중에서 라오스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① 포괄수출금융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내에서 자금용도의 특정 수출 거래에 대해 제한 없이 일괄 대출하는 상품이다. 직접 해외수출을 하였거나 수출물자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제외)에 대해 단기포괄수출금융(6개월)은 수출실적의 90% 이내(차세대 수출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기업, 수출초보 중소기업,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은 100%), 중기포괄수출금융(1년)은 수출실적의 60% 이내(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은 수출실적의 70%,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품목,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수출초보 중소기업 및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100%)에서 기업당 350억 원(중소기업은 25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다만,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 원(중소기업은 400억 원)까지 증액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율을 적용하며 우량기업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기타 기업은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채권보전을 시행한다.

3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kr/work/banking/export/intro.jsp>, 검색일: 2013.7.31) 참조.

②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상품목은 선박과 산업설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으로 대출금액은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지급되며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은 수출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 방식의 판권수출계약에 대한 대출금액은 총제작비에서 홍보비용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의 50% 이내에서 대출된다. 대출기간은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내(2년 미만)이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수출자의 과거 수출실적 및 수출예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별거래별로 신속하게 대출이 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③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이행능력³⁶⁾과 수출거래 안정성³⁷⁾ 등을 간단히 평가하여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으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거래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이다. 기술기반 신설중소기업 수출거래는 설립 5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이행능력평가를 생략하고 외부기술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지

36) 수출경력, 기업형태 등 일반사항, 제조시설 보유 여부 및 가동상황 등 제작능력,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안정성 등을 의미한다.

37) 수입자의 신용등급, 자기자산 등 신용도, 장단기 공급계약 여부, 적격신용장 여부 및 결제조건 등을 의미한다.

원하는 수출거래이고 재해기업 수출거래는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대출이다. 또한 차세대(성장산업)수출거래, 수출초보기업 및 포괄금융 방식 납품협력 중소기업 지원거래제도³⁸⁾도 구비하고 있다. 다만, 수출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 본지사(현지법인 포함)간 D/A, D/P 등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수출거래, 단기 또는 중기 포괄수출금융을 이용 중인 기업의 수출거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입은행 상환채원인 수출대금결제에 15일을 가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별 20억 원(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며 거래별로는 적격 금융기관 신용장거래 20억 원(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이행성 보증거래 20억 원 등이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15일 이내로 하되, 6개월 미만(이행성 보증은 1년 미만)이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율(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이다. 채권보전은 신용대출(연대보증 입보, 수출대금채권 및 수출 목적물 양도담보)의 형태로 진행된다.

④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이 대출은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술개발(R&D)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 회계연도 기준 수출실적의 합계액이 매출 합계액의 20% 이상(신성장동력산업은 10%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i) 차세대 성장산업의 수출 중소·

38) 직수출 규모가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및 개별 원청기업(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재 납품거래기간이 1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거래제도이다.

중견기업 ii)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제약개발의 대기업 iii)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 5년 이내 기업이 포함된다. 대상요건은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로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술에 한하여 대출된다.

대출한도는 실소요자금의 90% 이내이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등이 있어 중견기업은 80억 원(연구시설 구입비 50억 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중소기업은 50억 원(연구시설 구입비 20억 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바이오·제약기업은 1,000억 원 규모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율(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이나 신성장동력산업은 10년으로 보다 장기로 대출이 시행된다.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⑤ 해외시장개척자금 대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이다. 대상요건은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박람회·세미나 참가,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출된다. 대출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3분의 1 이내이나 중견기업은 30억 원, 중소기업은 20억 원 이내에서 대출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율이고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가능)이며 상환방법은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2년 이하 대출은 만기일시상환 가능)이다.

⑥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기업이나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히든챔피언 인증 5년 이내 기업 포함)이다. 대상요건은 신규 공장건설, 기존공장의 증축 및 개보수, 수출촉진 효과가 있는 공장의 매입, 기계류 및 각종 설비구입설치, 노후설비의 교체 및 개보수 등이다. 대출한도는 실소요자금의 80% 이내이지만 신용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담보 제공 시 실소요자금의 100%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율(대출 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이고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분 할상환(3년 이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⑦ 수출용 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신용도가 양호하지 않거나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외화표시 매출채권을 추가적인 담보 없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신용이 양호한 수출업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수출용원자재 공급 기업이다. 대상 수출채권은 수출용원자재 공급 기업이 신용이 양호한 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보유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외화표시매출채권이다. 거래방식은 공급물품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매출채권 매입 시 매입대금의 80%에서 100%까지 선지급하고 유보금은 수출업자가 만기일에 공급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 앞으로

지급된다. 담보제공 여부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공급 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소구조건이므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할인료율은 Libor+가산율(%)을 적용하는데 수출자의 신용위험, 대금결제기간, 타 금융기관의 할인료율 수준, 시장관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거래 이행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데 이 중 라오스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팩토링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수출거래로 발생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이다. 대상거래는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로 i) 국내기업의 직접수출 거래 및 중계무역거래, ii)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을 경유하는 거래, iii) 국내기업이 원재료를 제공하여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수출거래, iv)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이 제3국 수입자 앞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대상수출채권은 직접방식이면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수입자 신용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이며 제휴방식은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이다. 대상기업은 수출자면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 경험이 있는 수출기업이며 수입자는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 등이다. 거래방식은 수출거래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채권보전은 수입자 신용으로 설정한다. 할인료는 Libor+가산율(%)인데 제휴방식은 할인료 외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수출환어음매입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이다. 대상거래는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따른 수출 거래이며 대출금액은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상(분할 선적 거래, 또는 다수의 거래가 동일자로 취급되면 미화 5만 달러 이하도 취급)이다. 대출기간은 30일 이상 2년 미만(중소·중견기업,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권 매입은 30일 이하도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고 운용방식은 회전한도 방식(건별 취급도 가능)이다. 대출 금리는 Libo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 적용)이며 채권보전은 우량기업은 신용대출이고 기타 기업은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③ 포페이팅

국내 수출업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신용도가 양호한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한 기업이다. 대상거래는 수출입은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중계무역 포함)이다. 대출금액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상 미화 5,000만 달러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30일 이상 2년 미만이다. 할인료율은 1년 이하는 Libor+가산율(기간, 국가, 은행별로 차등 적용)을 적용하고 2년 이하는 Swap rate+가산율을 적용한다. 채권보전은 신용방식이다.

④ 무역어음 재할인

국내 시중은행이 국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재할인용 무역어음을 수출입은행이 재할인함으로써 국내 수출자를 간접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무역금융제공 실적(Usance L/C, O/A, D/A 수출거래 관련 매입외환 실적 등)이 있는 은행이고 대출금액은 대상 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실적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Libor+가산율(대출기간, 수출입은행 차입금리 반영)을 적용하며 채권보전은 신용방식이다.

⑤ 수출중소기업 무역금융 리파이낸싱

시중은행의 수출중소기업 앞 무역금융 지원 실적에 근거하여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상업은행이고 대출금액은 대상 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실적(월 한국은행 앞 제출하는 무역금융 실적) 내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수출입은행 기준 금리+가산율(대출기간, 수출입은행 차입금리 고려)이며 채권보전은 신용방식이다.

다. 수출보험

한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은 수출신용보험과 단기수출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험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수출업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 전 수출불능 위험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및 재판매 거래는 포괄보험의 적용을 받고 중계무역은 개별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의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수출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선적 전 보증에 한해서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업자가 대상 업체가 될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의 대상거래는 선적 전 단기수출보험은 일반 수출입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 포함) 기타 공사가 정하는 자금 대출이 대상이며 선적 후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 중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만 가능하며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거래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설립 당시부터 한국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Trade Finance, Euromoney, The Asset 등에 의해 최우수 아시아 지역 수출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of South Africa Ltd., 우즈베키스탄의 Uzbekinvest National Export-Import Insurance Company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무역보험 공동 지원 등 무역거래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채권회수 및 신용조사 부문에서 정보교류 추진,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의 공동 금융제공 등에 합의하는 등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베트남 정부가 WTO 가입을 위해 설립한 Vietnam Development Bank(VDB)의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재무부 및 VDB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WTO 수출보조금의 분쟁발생가능성 해소 등에 관한 실무경험 전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개발연대의 경험과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무경험 등을 통하여 수출금융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개도국 측의 이 분야에서 원조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3. 라오스 금융 현황

현재 라오스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 국영상업은행(state owned commercial bank), 민간은행, 합자은행(joint stock bank), 외국은행의 지점 및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오스의 GDP 규모에 비해 매우 소규모의 금융기관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규모는 주변국과 비교해도 매우 작은 수준이다. 라오스의 상업은행은 1980년대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상업은행은 역사가 10년 정도인 초기발전단계이다. 따라서 이들 상업은행은 비록 최근에는 발전하고 있지만 예금수신, 대부, 외환교환 등과 같은 기초적인 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31개 상업은행의 301개 지점과 35개의 환전기관 및 565개의 ATM 기기가 있다. 하지만 전체 자산규모는 50조 8,398억 킵 수준에 불과하다.³⁹⁾

World Economic Forum이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에서 제시한 라오스의 금융시장발전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국 148개국 중 91위 수준으로 라오스의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인 81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국가 중 미얀마의 144위, 베트남의 93위보다는 높지만 캄보디아 65위, 태국 32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출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14.9%의 응답자가 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라고 응답한 18.9%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의 제약요인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는 점도 라오스 금융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GDP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도 17.3% 수준으로 148개국 중 83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얀마 12.8%(113위), 캄보디아 13.5%(109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베트남 30.7%(22위)나 태국 30.6%(24위)보다는 매우 낮다.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라오스는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부문이 산업 및 상업 분야의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하는데 예금의 약 25% 정도만이 대출에 활용될 정도로⁴⁰⁾ 예금의 대출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친지나 미소금융(MFI: Microfinance Institution) 또는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라오스에는 MFI가 급증하여 총 97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한편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주로 단기투자

39) Bank of the Lao PDR(2013b).

40) Bank of the Lao PDR(2013a).

펀드를 운용하고 장기투자에는 1% 정도만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Indochina Bank, Phongsavanh Bank, ST Bank, ACLEDA Bank Laos Ltd,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등 국내 또는 외국계 은행의 영업이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어 금융에의 접근은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12년 말 라오스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라 외국상업은행의 등록자본 증자가 이루어져 라오스 은행들의 총자산은 2011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의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라오스의 금융동향⁴¹⁾ 살펴보면 먼저 2012년 말 기준 상업은행의 수신고(deposit: 국제기구 수신제외)는 29조 6,842억 킵 수준으로 2011년 말과 비교하여 32.57%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도 40.81% 수준을 보였다. 이 중 킵 표시 수신 비중은 48.90%로 전년대비 39.01% 증가한 반면 외환표시 수신 비중은 51.10%로 전년대비 26.94% 증가하여 킵 표시 수신 비중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업은행 대출규모는 2012년 말 기준 25조 5,660억 킵으로 GDP의 35.15% 수준을 보였다.⁴²⁾ 대출규모의 GDP 비중은 2008년 13.64%, 2010년 23.30%, 2011년 29.52% 등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성장률은 2008년 71.85%, 2010년 49.13%, 2011년 45.09%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수신이자율은 2012년에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킵(Kip) 표시 3개월 만기

41) Bank of the Lao PDR(2013a), pp. 22-30.

42) 이 중 건설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8% 수준이고 전년 대비 91.15% 증가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기예금은 5.17%(2011년 5.42%), 6개월 만기 정기예금 6.83%(2011년 7.15%), 1년 만기 정기예금 8.48%(2011년 9.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바트(Baht)화 표시 정기예금도 이자율은 하락하여 3개월 만기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2012년 이자율은 2011년 각각 2.34%와 2.73%에서 2.03%와 2.68%로 하락하였다. 대출이자율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1년 만기 대출의 A형 고객(customer type A) 이자율은 2011년 12.24%에서 2012년 13.50%로 증가한 반면 B형과 C형은 13.10%에서 12.8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라오스의 상업은행의 2012년 말 기준 최저대출금리(commercial bank prime lending rate)는 22.3%로 전 세계 181개 조사국 중 14위 수준을 보였다.⁴³⁾ 이는 주변 국가 베트남의 16.96%(31위), 미얀마 16.33%(32위), 캄보디아 15.22%(39위), 태국 6.95%(127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라오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 라오스의 금융 분야 상황을 고려해보면 라오스 기업들은 자금을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변의 경쟁국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외국인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은 대부분 상품의 생산과 판매대금의 회수 사이에는 내수기업에 비해 시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 부문의 낙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수출에서는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라오스의 수요 및 발전단계를

43) CIA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검색일: 2013.4.25).

감안한 무역금융의 활성화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적절한 무역금융의 새로운 도입은 라오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앞에서 살펴본 한국 개발시대 무역금융의 역할과 현재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판단해보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기회가 있음에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라오스 기업들에게 한국이 시행한 바 있는 무역금융과 수출신용은 이들 기업의 수출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예대마진을 줄이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라오스의 수출금융이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라오스에서의 수출금융은 식품가공, 목재가공 그리고 의류생산 등 라오스가 중점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설립되어 있는 국영상업은행인 Ban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Lao, Lao Development Bank, Agricultural Promotion Bank, Nayoby Bank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민간상업은행의 규모나 서비스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현재 국영상업은행이 전체 은행의 자산 및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국영상업은행은 전체 은행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며 67.7%의 저축과 60.5%의 대출, 전체 은행 지점

수의 85%를 차지하여 이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⁴⁴⁾ 특히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수출지원에 집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Ban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Lao(BCEL)는 Packing Credit 라는 제도를 통해 신용장(L/C), 구입계약서(purchase agreement), 견적서 (quotation) 또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을 제시하면 수출업자가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대출규모나 이자율 측면에서 라오스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되 활용재원을 확대하고 이자율에서 특혜를 주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유사한 사정에 처해 있는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영상업은행이 수출금융을 담당하면 국영기업이나 이들 기업과의 합작외국인기업에 수출금융이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라오스는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재원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금리의 제공이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⁶⁾ WTO의 수출보조금 금지규제로 수출에

44) Keovongvichith(2012), p. 151.

45) www.bcellaos.com(검색일: 2013.8.10)

46) OECD에도 '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형태의 수출금융기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법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라오스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 직접지원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보증, 보험 등 수출신용은 대부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라오스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변 경쟁국을 고려하여 특혜금리를 제공할 때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협정(A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 협정 제1조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government or any public body)에 의하여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공여되어 혜택(benefit)이 주어지면 보조금으로 간주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가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한정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성이 없을 때에는 이 협정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가져오는 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음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GATT 규정 및 WTO 협정 제6조 1항).

- i)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
- ii)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iii)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장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iv)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 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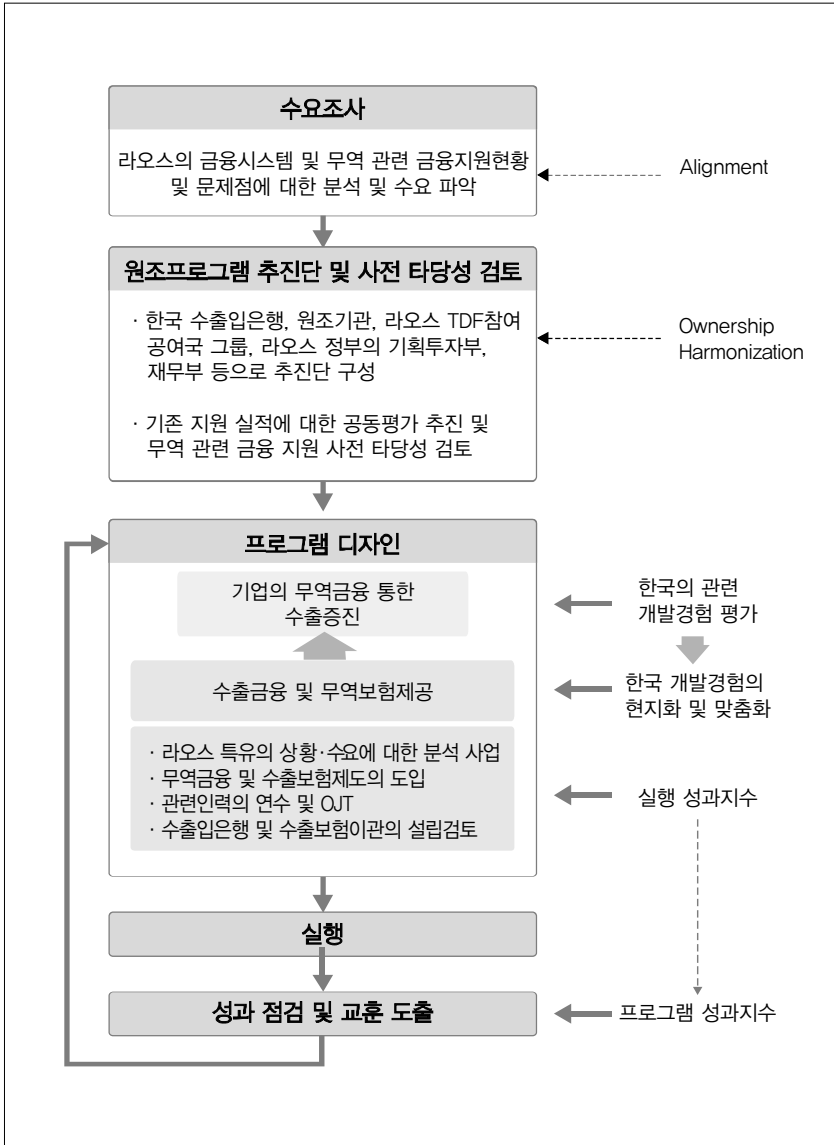
위의 행위 중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WTO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GATT 규정 및 WTO 협정 제6조 3항).

- i)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ii)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iii)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 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iv)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상품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 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라오스의 수출금융제도를 강화할 때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무역금융 관련 원조 프로그램을 『무역분야 개발 협력 방안』(이호생 외, 2012)에 제시되어 있는 순차적 사업에 따라 라오스의 현황에 맞추어 구성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의 흐름도



자료: 이호생 외(2012)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라오스에 관한 무역 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에 특유한 상황 및 수요에 대한 분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역 관련 금융기관의 설립에 장애가 되는 라오스 특유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기존 무역금융 지원기관의 효과성 진단 및 라오스의 무역 관련 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자원(기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한 분석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 관련 금융기관(수출입 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 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라오스의 해당 전문 인력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해야 하고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라오스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OJT도 실시해야 하며 라오스에 적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 수행 매뉴얼 작성도 필요하다.

또한 무역 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의 후속 및 보완 사업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연례정책회의 개최를 통한 종합컨설팅 실시, 한국 금융기관과 업무협조 네트워크 확대, 지속적인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CA: 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 인지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Chauffour 외(2010)는 개도국이 수출금융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세계은행과 IMF가 설문조사한 결과 전 세계 수요의 감축에 이어 무역금융의 부족이

세계무역 감소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⁴⁷⁾ 특히 신흥개도국은 무역금융의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개도국이 ECA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ECA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금융기구는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금융부문에서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서도 수출신용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성공적인 수출신용기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CA를 일단 설립하면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조조정, 폐지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해당 경제의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ECA의 설립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CA의 설립으로 해당국의 주어진 금융 부문의 상황에 입각하여 추가적인(additionality) 무역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실시되는 자본 및 투자금융의 수준과 조건 및 대출자격,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자금조달의 제약요인,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담당능력 등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균형가격과 수량에 ECA의 설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하여야 한다. 새로운 자금의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의 자금을 재분배해야 하는 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국영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의 제공은 민간

47) 따라서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집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기도 하다.

상업은행의 이 분야에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실물부문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금융은 실물부문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ECA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ECA의 형태는 정부부처의 하나로 설립될 수도 있고 정부가 소유권을 100% 보유하거나 일부 보유하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민간은행에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설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ECA가 라오스의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ECA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하는데 이때 특히 위험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ECA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든 간에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민간기업과도 업무를 추진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ADB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라오스의 은행부문 개혁프로그램(Banking Sector Reform Program)을 집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⁴⁸⁾는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적절하다(partly relevant)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보고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와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명확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연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는

48) ADB(2011).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중앙은행의 적절한 감독 및 통제능력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A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출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라오스 경제가 7~8%의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광물과 전력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이다. 전체 수출에서 광물과 전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FDI도 광물 및 전력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화란병(Dutch Disease)으로 인한 여타 생산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원동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광물과 전력 부문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라오스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2006년 라오스에 대한 DTIS(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를 작성하였다. 라오스 DTIS 2006은 라오스의 무역에 대한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처방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라오스 정부는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라오스 정부는 2012년 기존 라오스 DTIS 2006을 개선한 DTIS 2012를 작성하였다. 라오스 DTIS 2012는 민간부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정책방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처방 및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AfT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AfT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정부의 수출촉진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는 AfT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부분의 저개발국에서 중소기업은 생산 및 수출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소득의 대부분이 이들 기업을 통해 창출된다. 따라서 저개발국의 소득향상과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개발국의 중소기업은 생산 및 수출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출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및 대외거래 수행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개발국 정부는 다각도로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시행한다.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은 라오스 정부의 수출역량 강화 목표에 부응하는 AfT 프로그램으로서 수출촉진서비스 도입·확충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라오스 중소기업의 무역 정보 및 거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라오스 정부의 개발전략은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 NSEDP7), Vision 2020 등에 담겨 있다. 이에 맞추어 경제개발을 위해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수출전략이 작성되었으며, 2012년 라오스 산업통상부가 주도하여 개정한 DTIS 2012에도 라오스의 무역 및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제약요인과 정책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라오스의 국가수출전략과 DTIS 2012에서 수출촉진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2010, 2012).

가. 무역정보서비스

무역정보서비스의 목적은 무역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농·임업, 공예산업 등의 무역활동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의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무역활동을 조사해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무역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무역정보에 대한 서베이를 수행하는 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무역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사무국에 DB로 보관
-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에 제공할 네트워크 구축
- 수집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규정 도입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라오스 정부는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이다.

- 수출품의 생산단계에서 생산량을 보고하는 것 이외의 모든 서류요구를 최소화
-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외국어, 유통과정,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여 수출과 관련된 지식과 직무능력(skills)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존 및 잠재적 수출업자에게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

- 라오스업체와 외국업체 간 무역거래 주선, 국내 및 해외 무역박람회 개최, 국내 수출업자를 위한 해외 연수 주선
-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무역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수출업 참여를 촉진
- 라오스의 수출업자들이 수출과 관련된 정보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 발간물을 통하여 정보와 요건에 대한 이해를 확산
- 무역관련 교육·훈련과정, 수출촉진서비스 등은 향후 설립될 국가수출촉진위원회(NEPC)에서 담당

한편 라오스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수출시장(국경무역, 한·중·일 시장과 ASEAN 시장, 영국과 호주 시장,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경무역에 있어서는 밀무역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저가품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경무역의 절차 및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라오스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및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특히 운송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수공예품의 수출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라오스 정부에서 무역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관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하의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는 [표 6-1]과 같다.

표 6-1. 라오스 정부의 무역 관련 부서

MoCI 부서	주요 역할
수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원활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및 규제 • 수출입에 관한 규정의 입안·이행 및 동 규정의 국제기준 준수 • 관세부서와 협력하여 원산지 기준에 대한 규정의 협상, 관리 및 감독 • 무역원활화 및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비관세장벽(NTB) 제거 촉진 • 수출입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대외무역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통상에서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연구, 정책·전략 개발 • 수출입 촉진을 위한 정책·규제 시행 • 다자간, 양자간, 지역적 수준에서의 시장접근 협상 • 비관세장벽 제거, 기업 영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무역 촉진 • 타국과의 국제협약, 합의, 양해각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독 • 무역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의 협의
무역촉진·제품개발국 (TP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규정, 연구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지원 • 다음에 관련된 정부의 규정 및 규제를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촉진 -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 - 라오스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 - 라오스의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마케팅 정보 제공
무역을 위한 경제연구소 (ERI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부를 위한 연구 및 자문 • 기업에 대해 시장정보 및 역량교육 제공 •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AFTA 이행, 무역정책 개혁 등의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을 통해 산업통상부의 활동을 지원 - 라오스와 관계된 무역분야 이슈에 대한 연구 - 라오스 무역촉진전략 개발 - 상법개혁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자문 제공 - 무역, 마케팅, 인적자원, 관광, 전자상거래의 법적·경제적 요소에 대한 교육 제공(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 무역관련 역량강화 교육·연수 제공
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문의 개발 및 투자 촉진 - 수공예산업의 육성 • 목재생산 부문에 대한 규제 • 산업개발특구(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중소기업국 (SMEP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제품생산, 무역활동 등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촉진 • 중소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안, 지원조치 및 사업 수행

자료: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2), pp. 69-70.

[표 6-1]과 같이 라오스 산업통상부의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이 주로 수출촉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국, 중소기업국, 대외무역국 등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상태여서 수출촉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또한 이러한 부서의 역량이 미흡하여 산업 및 기업에 맞춤형 전문적인 수출촉진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라오스의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수출진흥을 주도할 기관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NEPC: National Export Promotion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이며, DTIS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2012). NEPC의 주요 기능은 라오스 국가수출전략을 관리하는 것이다. NEPC의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NEPC는 수출진흥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수출진흥 지원활동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서 NEPC에서 협의한 결과는 민관 포럼뿐만 아니라 공식 채널을 통하여 관련 정부부서에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즉, NEPC는 사업자협회, 상공회의소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부문과 수출진흥 관련 정부부문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수출전략의 수출경쟁력 개발전략에서 제시된 교육·훈련,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NEPC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1,400만 달러의 다자공여기금(Multi-Donor Trust Fund)으로 시행되는 2013~17년 TDF 2는 라오스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적 지원 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자공여기금에는 EU, 독일(GIZ), 아일랜드(Irish Aid) 및 세계은행이 참여하고 있다.⁴⁹⁾ TDF 2의 사업은 2012년에 작성된 DTIS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① 무역원활화, 무역 정책 및 규제 ② 민간부문의 생산·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개선 ③ AfT의 주류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제까지 한국은 TDF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TDF와는 별도로 세계은행의 통관시스템 개선사업, ADB의 SPS 시스템 개선사업, 미국의 경제통합 지원 사업, 독일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라오스에서 시행된 AfT 사업 중에서 수출촉진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TDF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출촉진서비스의 초보적인 모습에 해당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본 사업은 국가수출전략에서 제시된 전략 중의 하나인 무역정보서비스

49)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과 일본이 출연한 Social Development Fund에서 지원되는 Sustainable Silk Production Partnership Project(1,250만 달러, 2011~15년)도 TDF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라오스의 실크제품 생산에 있어 국내 공급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TDF 1에 포함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2년 중반 라오스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무역정보 인터넷 포털서비스(www.laotradeportal.gov.la)가 개시되었다. 라오 무역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무역관련 법·규정, 제한조치, 승인요건, 품목별 관세
- 수출입과 관련된 상세한 절차
-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의 상세 목록
- 통관 절차, 무역관련 각종 양식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라오 무역 포털의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라오스 무역관련 규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의 여러 부서가 수출입관련 규정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라오 무역 포털은 라오스가 도입·적용하고 있는 무역관련 규정, 관세, 통관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민간부문이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관련 규정에는 라오스가 WTO 및 ASEAN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거나 개선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된다. 향후 수출입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수출입 면허·허가의 발급을 포함하여 수출입 절차의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라오 무역 포털을 무역관련 통합창구(National Single Window)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라오 무역 포털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EU,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의 무역규정, 무역기회 등에 대한

개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무역진흥기관(Trade Promotion Organization)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포털이 도입된 이래 포털에 대한 설명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포털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오 무역 포털은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6-1. 라오 무역 포털



자료: <http://www.laotradeportal.gov.la>(검색일: 2013.11.20).

향후 라오 무역 포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수출입관련 법·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통관과 관련된 절차를 가능한 한 포털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창구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는 라오 무역 포털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TDF 2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부서가 보유한 무역관련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포털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오 무역 포털의 또 다른 진화방향은 라오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수출기회의 분석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라오 무역 포털의 수출촉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수출촉진 지원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라오스의 민간부문 개발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국적으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가 620여 개에 불과하며 수출시장에서의 생존율도 낮은 상태이다.⁵⁰⁾ 숙련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현지 관리 및 감독 인력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은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라오스 기업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 ASEAN 경제통합 등에 대비하여 라오스 기업의 국제적·국내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경제분야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TDF 1에서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의 사업은 라오스 산업통

50) Stirbat · Record · Nghardsaysone(2011) 참조.

51) World Bank(2011a) 참조.

상부 산하의 무역촉진·제품개발국(TPPD: Department of Trade Promotion and Product Development)이 주도하였다. 이 분야의 사업들은 수출잠재력이 높은 산업부문(의류 제조, 수공예품 제조, 목재 가공, 농산물 가공)을 선정하여 그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은 의류제조업체들을 위한 GSC(Garment Skills Development Center)인데, GSC는 의류업체의 감독 및 재봉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업체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의류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⁵²⁾

TDF 1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가 TDF 2에서는 ‘다변화 및 경쟁력’ 분야로 개편되었다. TDF 1의 관련 사업이 소수의 산업부문을 인위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TDF 2에서는 소규모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Business Assistance Facility(BAF)인데, 이 사업은 개별 소기업에 사업개발서비스(BDS: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를 제공하여 소기업이 숙련기술과 사업경험을 쌓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수출량을 늘리고 대내적으로는 수입품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³⁾

① 사업개발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조사업 개요

공여국이 사업개발서비스(BDS)와 관련된 원조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국의 중소기업이 국내 및 수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정착

52) World Bank(2013b) 참조.

53) 현재 라오스에서는 사업개발서비스의 공급이 미미하다. 전국적으로 약 20여 개의 BDS 제공업체가 있으나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World Bank(2012b) 참조.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민간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은 민간부문 개발, 고용창출 및 빈곤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업개발서비스는 직업훈련, 컨설팅 및 자문, 마케팅, 기술 개발 및 이전, 기업간 연계(business linkage promotion)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⁵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사업개발서비스의 일부분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회계, 세무, 법·규정의 준수 등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개발국에서 전략적 사업개발서비스, 즉 기존 사업에서의 부가가치 향상, 사업기회 및 신시장의 발굴과 진입, 생산설비의 구축, 자금의 조달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54) Committee of Donor Agencies for Small Enterprise Development(2001) 참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업개발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Market access and development	Marketing research, intelligence, and strategy development / Emerging opportunities and trade enquires, including niche markets and regional and global markets / Market/trade barriers, trends and competitors / Trade fairs, product exhibitions and B2B contacts, Development of samples and promotion tools and materials / Showrooms and packaging / Advertising / New product development
Supporting infrastructure	Storage and warehousing / Transport and distribution / Business incubators / Telecommunications / Computer services
Supplies	Linking SMEs to input suppliers / Supplier's capacity to provide quality inputs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Monitoring, counselling and advisory services / Feasibility studies and business plan development / Technical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s of legal issues, finance and taxation, accountancy and bookkeeping, produc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innovation incubation / Linking SMEs and technology suppliers / Technology procurement / Technology sources and pricing /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Cost and energy-efficient technologies / Productive improvement, Equipment leasing and r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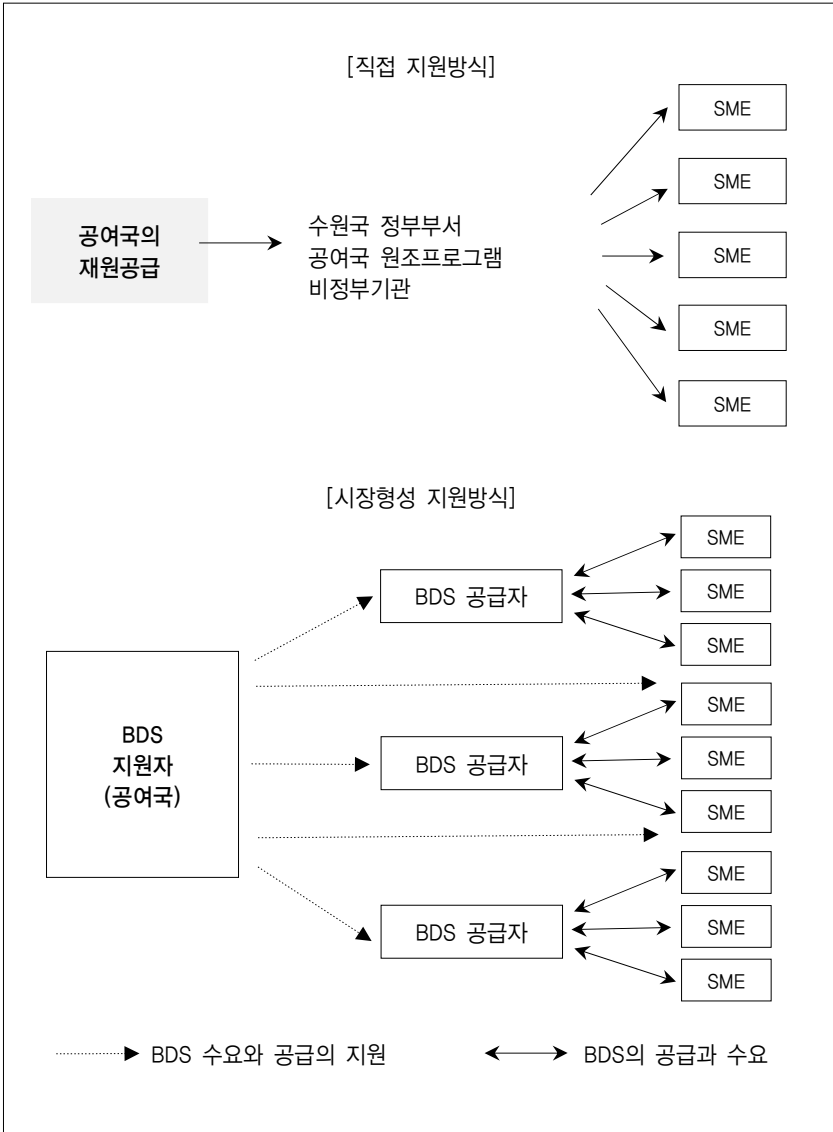
자료: Abe · Troilo · Juneja · Narain(2012), p. 120에서 발췌.

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더욱이 저개발국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사업개발서비스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음에도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국의 민간개발 부문에 관심을 지닌 다자간 개발은행 및 일부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사업개발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조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원조사업의 수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직접 지원방식으로 수원국의 중소기업 지원부서, 준정부기관, NGO 등이 사업개발서비스를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거나 공여국이 직접 사업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형성 지원방식으로 수원국에서 민간 사업개발서비스 공급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개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사업개발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에 소재하거나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민간 사업개발서비스가 공급되기 어렵다. 직접 지원방식은 민간 사업개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소기업에까지도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 지원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수요에 부합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소지가 크다는 점,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출현 및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 수원국 정부부서 및 민간부문이 원조에 의지하게 되어 수원국의 사업개발서비스가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업개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에 민간 사업개발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6-2. 사업개발서비스의 지원방식



자료: Abe · Troilo · Juneja · Narain(2012), p. 121.

시장형성 지원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개발서비스 공급자들이 초기 창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창업 초기단계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사업개발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는 수원국 정부가 공여국 및 원조기구와 협력하여 민간 사업개발서비스의 공급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저가에 양질의 민간 사업개발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개발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수익성이 개선된 중소기업은 보조 사업개발서비스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보조금이 없이도 민간 사업개발서비스 시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개발서비스의 시장형성 지원방식이 직접 지원방식에 비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장형성 지원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사업개발서비스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민간 사업개발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수원국은 직접 지원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세계은행이 수행 중인 사업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에 대한 정부 사업개발서비스 사업이 있다.⁵⁵⁾ 이 사업은 PLO 정부부서가 사업개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라오스 TDF의 사업개발서비스 지원 사업

독일의 GIZ가 2011년 실시한 라오스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에 따르면 라오스 중소기업은 자금, 경영기법, 숙련인력, 시장정보 등의 부족을

55) World Bank(2012a) 참조.

사업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하였다.⁵⁶⁾ 이러한 제약요인의 대부분이 사업개발서비스의 대상이다. 이 기업조사에 참여한 라오스 중소기업 중에서 사업자협회(BMOs),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개발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약 20%, 상업적 사업개발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가 약 7%로 조사되었다.⁵⁷⁾ 라오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개발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은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고품질의 사업개발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오스 TDF의 BAF는 라오스의 중소기업에 사업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ft 프로그램이다. BAF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성장계획(business growth plan) 작성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수출 및 국내 시장 진입, 새로운 제품군의 개발,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이 사업성장계획에 포함된다. 둘째, 중소기업이 사업성장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업개발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matching grant)하는 사업이다. 현지 중소기업은 주로 검역 및 위생 기준, 품질기준, 환경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TDF 2의 비용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⁵⁸⁾ TDF 2가 시행되는 2013~17년 기간 동안 사업성장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세부 BDS 구매비용 지원에 각각 120만 달러가 책정되어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56) 이 외에도 관리 인력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낮은 생산성 등도 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IZ(2012) 참조.

57) 나머지 중소기업은 일정 수준은 사업개발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조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8) 비용지원 방식은 다른 수원국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팩트 평가결과에 따르면 1달러의 비용지원당 30~40달러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adot · Fernandes · Gourdon · Mattoo(2011) 참조.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라오스 정부부문의 무역관련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능력형성 AfT 사업은 주로 TDF 이행부서의 역량강화, 무역관련 연구역량의 강화, 무역 관련 법·규정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라오스 산업통상부에 소속된 TDF 이행부서(NIU: National Implementation Unit)의 역량강화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TDF에 참여하는 공여기관들은 라오스 NIU의 TDF 관리역량과 공여기관과의 소통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라오스 산업통상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ERIT의 연구역량 강화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ERIT는 라오스 무역관련 공무원을 위한 무역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RIT의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⁹⁾

라오스 국가수출전략 및 DTIS 2012는 라오스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촉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2010, 2012). 라오스 산업통상부 산하의 무역촉진·제품개발국(TPPD), 산업국, 중소기업지원국 등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서를 대상으로 무역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수출촉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없다.

59) World Bank(2013b) 참조.

표 6-2. TDF 2의 자원 배분

SECO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PROJECT (2013~2017)		
Project component	Project costs (US\$)	
A TRADE FACILITATION,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5,600,000
<i>A1 Trade facilitation support</i>	1,300,000	
A1,1 Trade facilitation secretariat and action plan implementation support	400,000	
A1,2 Capacity building for managers in trade related agencies	600,000	
A1,3 Trade portal support and development	300,000	
A2 Non Tariff Measures review and rationalization	1,300,000	
A2,2 Classifying, reviewing and streamlining domestic NTMs	1,100,000	
A2,3 Assessing NTMs faced by Lao exporters	200,000	
A3 Trade in services	1,700,000	
A3,1 Enhancing regulatory capacity in services trade	1,200,000	
A3,2 Improving access to services regulations	500,000	
A4 Trade in goods	1,300,000	
A4,1 Strengthening trade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s	550,000	
A4,2 Disseminating commitments and building capacity on trade remedies	250,000	
A4,3 Further strengthening the SPS legal framework	500,000	
B DIVERSIFICATION AND COMPETITIVENESS		4,100,000
B1 Business Assistance Facility	2,500,000	
B1,1 Direct consulting services	1,200,000	
B1,2 Matching grants	1,200,000	
B1,3 Impact evaluation	100,000	
B2 Labor standards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1,600,000	
B2,1 Factory standards improvement scheme	1,200,000	
B2,2 Transition of the GSC towards financial and operational independence	400,000	
C MAINSTREAMING AID-FOR-TRADE		4,300,000
C1 National Implementation Unit, and Trad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Working Group	2,500,000	
C2 DTIS action matrix/roadmap challenge facility	1,000,000	
C3 Research and policy analysis	800,000	
C3,1 Research methodology and capacity building	400,000	
C3,2 Research facility	400,000	
Total costs		14,000,000

자료: World Bank(2012b), p. 47.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 바, 정부의 산업·금융 정책, 민간의 기업가정신, 높은 교육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이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던 수출촉진서비스도 한국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공기관으로 KOTRA를 설립하였으며, KOTRA는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무역진흥기관(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사례로 평가받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⁶⁰⁾ 이에 따라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한국 경험을 활용하려는 수원국이 늘고 있다. [표 6-3]은 한국의 무역진흥기관 설립 및 운용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KOTRA의 수출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수출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현재 KOTRA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서비스로는 경제·무역·산업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조사 및 제공, 무역사절단·무역박람회 지원, 무역거래 성사 지원, 지사역할 대행, 공동물류센터 운영, 전자무역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수출 환경 및 기회에 대한 정보,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는 수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출을 위한 해외 인력 및 설비의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KOTRA의 지사화 사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사업비용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⁶¹⁾

60) 해외사무소 네트워크의 수출촉진 기여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Kang(2010); Hayakawa(2011)이 있다.

표 6-3. 한국의 무역진흥기관 설립 및 운영 경험

시기 구분	1단계 (1960년대)	2단계 (1970년대)	3단계 (1980년대)	4단계 (1990년대 이후)
정책 목표	수출입국 기초인프라 구축	수출시장 개척기능 강화, 수출지원 인프라 도입 및 개선,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무역자유화, 정보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 수단	KOTRA 설립 (1962) - 수출상품 발굴, 주요 수출대상국 수입규제 정보 조사	KOTRA의 제반 기능 강화, 특히 해외시장 조사기능, 마케팅 기능 강화 -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	- 수출상품의 고급화 유도 -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지원방안 마련 - 우수 전문 인력 육성기관 설립 - 무역 정보화 시스템 개발	- 신용유망시장 정보조사·마케팅 기능 강화 - KOTRA 본사와 해외무역관을 온라인으로 연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성공 요인	- BETRO(영국), JETRO(일본) 벤치마킹 - 적극적인 수출상품 발굴(수출특화상품 업종별 현황 조사),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지원 - '수출학교' 설립	-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 국내외 전시활동 - 해외시장 개척기금 운용 - 국내외 수출현안 조사기능 강화 - GSP 제도를 분석, 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3저 현상을 수출경쟁력 제고에 활용 - 정보수집 기능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 - 수출상품 개발 지원 및 고급화 지원 사업 전개 - 중소기업의 거래 알선사업 강화	- 개도국 정보조사 기능 강화 - 개도국 경제협력관계 강화 지원 - 선진국의 통상압력 대응방안 마련 - 벤처기업, 지자체 수출지원 기반 강화 (박람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자료: 주동주·차문중·권 율 외(2012)에서 발췌해서 저자 작성.

KOTRA의 수출촉진서비스가 한국의 수출 증대에는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KOTRA의 사업모델이 다른 수원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각국은 나름의 경제적·행정적·문화적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국은 무역진흥기관의

61)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 참조.

표 6-4. KOTRA의 주요 사업

사업의 종류	주요 내용
무역·투자 정보의 수집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무소를 통해 수집된 경제·무역·산업 정보를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 • 해외시장, 투자환경, 지적권, 프로젝트 입찰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입업자들의 인콰이어리를 접수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거래의 성사를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의 해외 사무소가 유료로 지사의 역할을 대행 • 해외 시장에서 한국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운영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투자환경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지원 • 한국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업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무역 상담기회 제공 • 무역거래의 제반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액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지원 • 한국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해외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고, 국내에서도 무역박람회를 개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FDI 유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치되었고 2003년에는 Invest Korea(IK)로 확대 개편
해외투자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과정 및 수주 지원 • 해외 현지법인(판매법인, 공장 등) 설립 지원 • 투자 및 사업 환경, 법인설립 입지정보 조사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 종합컨설팅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
신성장 전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글로벌화 사업, 조달 지원 사업, 의료바이오산업 지원 사업,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ICT 마케팅사업, KOTRA 보증브랜드사업,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사업,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 등

자료: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 p. 154.

필요성, 설립형태, 담당업무, 효과성 등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입장을 지닐 수 있다. 수출 진흥을 모색하는 저개발 수원국이 한국형 무역진흥기관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표 6-5. 무역진흥기관에 대한 저개발 수원국의 우려와 한국의 경험

정부 부처가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TPO를 설립해야 하는가?

경제발전 정도가 앞선 선진국의 정부조직에서 중앙정부는 정책수립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분리시킴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적합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저개발국의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TPO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TPO의 설립 여부는 전적으로 한 국가의 정책방향에 달려 있음. 1962년 국가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KOTRA는 수출중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진흥기관을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역진흥기관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미 권한을 지닌 정부 부처가 독립된 무역진흥기관의 설립에 후호적일 것인가?

한국도 KOTRA 설립 당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였음.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무역진흥기관 설립을 주도하고 그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예산을 고려하여 무역진흥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설립 초기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고,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원을 점차 증가시켜야 함. 해외사무소는 기존의 무역규모가 큰 무역상대국의 주요 도시부터 설립하고 유능한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해야 함. 또한 해외사무소의 운영예산을 ODA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임.

무역진흥기관의 운영 예산은 정부에서 보조해야 하는가?

무역진흥기관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대신하는 비영리 준정부기관임. 무역진흥기관의 서비스는 자국 무역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국 기업 모두에 공평하게 제공해야 함.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기업의 수익 증가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가 가능할 것임.

무역진흥기관의 설립 당시에 구성원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 일부가 전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겠으나, 무역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야 하며, 국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함.

무역진흥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다자간·지역적·양자간 무역규범의 내용을 무역업체에 이해시키며, 무역 상대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다음으로는 무역업체에 유망한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하고, 수출이 유망한 국내 제품을 수입할 해외 수입업자를 탐색하여 국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자료: 나윤수(2011)에서 재인용: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 p. 155.

한편 KOTRA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이 시행해 온 수출지원조치를 살펴보면 [표 6-6]과 같다. 이러한 개발경험도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현지화한다면 수원국의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6-6.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조치

사업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 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수출역량별로 차등지원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 현지경험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진출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현지정보가 부족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도모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등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 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kr/policy/support>, 검색일: 2013.10.1).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라오스 수출진흥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정부부문의 수출 촉진서비스 제공역량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라오스에서 수출촉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AfT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TDF 사업의 일부분에 수출촉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까지 TDF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향후 한국이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등을 충실하게 고려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AfT에서는 이미 매우 성공적인 원조조화의 사례로 평가되는 TDF가 가동되고 있다. TDF는 라오스의 무역에 대한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처방을 제시한 DTIS 및 국가수출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조일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TDF에 참여하는 것은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TDF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부분적으로나마 수출촉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TDF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BAF를 지원하고 더불어 라오 무역 포털의 수출촉진서비스 기능 강화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²⁾ 또한 TDF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

62) 본 연구팀의 라오스 현지조사 면담과정에서 TDF를 주도하고 있는 현지 EU 대표부는 수출 촉진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촉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산하 부서들의 기능분담 명료화 작업이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무역촉진·제품개발국으로 수출촉진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이 사업개발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해 온 조치를 현지 사정에 적합하도록 현지화하여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주동주·차문중·권윤휴 외(2012)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개발경험, 프로그램 추진역량 등을 바탕으로 ‘수출지원 기관(KOTRA, KITA)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을 경제일반 분야 모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원국의 하나로 라오스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스 정부는 DTIS 및 국가수출전략에서 국가수출촉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도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그 효과성이 매우 클 것이다. 현재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위상, 기능, 업무, 조직 등에 대해 개략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위원회는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참여를

글상자 6-2. '수출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요

- 한국형 ODA 모델로서의 비교우위
 - 획기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 기반 마련
 -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수출지원 인프라 조성
 -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관의 기능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달성
 - 산업화 초기단계부터 선발개도국에 이르기까지 전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국내외 사업 수요 - 대상 수원국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의 최빈개도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일부 중앙아메리카 개도국 등은 산업기반 및 수출 인프라 부족 → 우리나라의 1, 2단계 경험 전수 유망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도국 등은 수출지원 기관이 부분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기능이 미흡 → 2, 3, 4단계 경험전수 필요
 -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국들도 수출지원 기관의 설립·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임

- 구성요소
 - 사업요소
 - 수출지원 제도 구축, 관련 기관 설립 운영 노하우 전수, 수출지원 사업 도입 및 운영, 수출지원 인적교류 프로그램
 - 세부 사업 프로그램
 - 수출지원 기관 설립 전략 수립
 - 관련 법·제도 도입 및 개선 방안 마련
 -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
 - 대한민국 기관협력 프로그램
 -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도입

- 추진방식
 - (1단계) 수원국가의 수출지원 역량 평가 및 수출지원 기관 운영 경험소개
 - (2단계) 법·제도 및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3단계) 수출지원 기관 설립·운영 방안 마련
 - (4단계) 수출지원 기관 설립 사후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료: 주동주·차문중·권 울 외(2012)에서 발췌해서 저자 작성.

통해 민간부문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는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KOTRA의 설립 및 운영 경험, 초기 개발단계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협의 경험 등 한국이 수출 진흥과 관련하여 보유한 경험은 라오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TRA의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는 한국의 수출촉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라오스도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수출전략 및 DTIS 2012에 나타나 있는 라오스의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지원 Af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라오스 TDF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을 통한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

- 라오 무역 포털의 수출촉진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
- BAF의 수출촉진서비스 지원
-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을 중심으로 대면 수출촉진서비스 제공 지원
-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조치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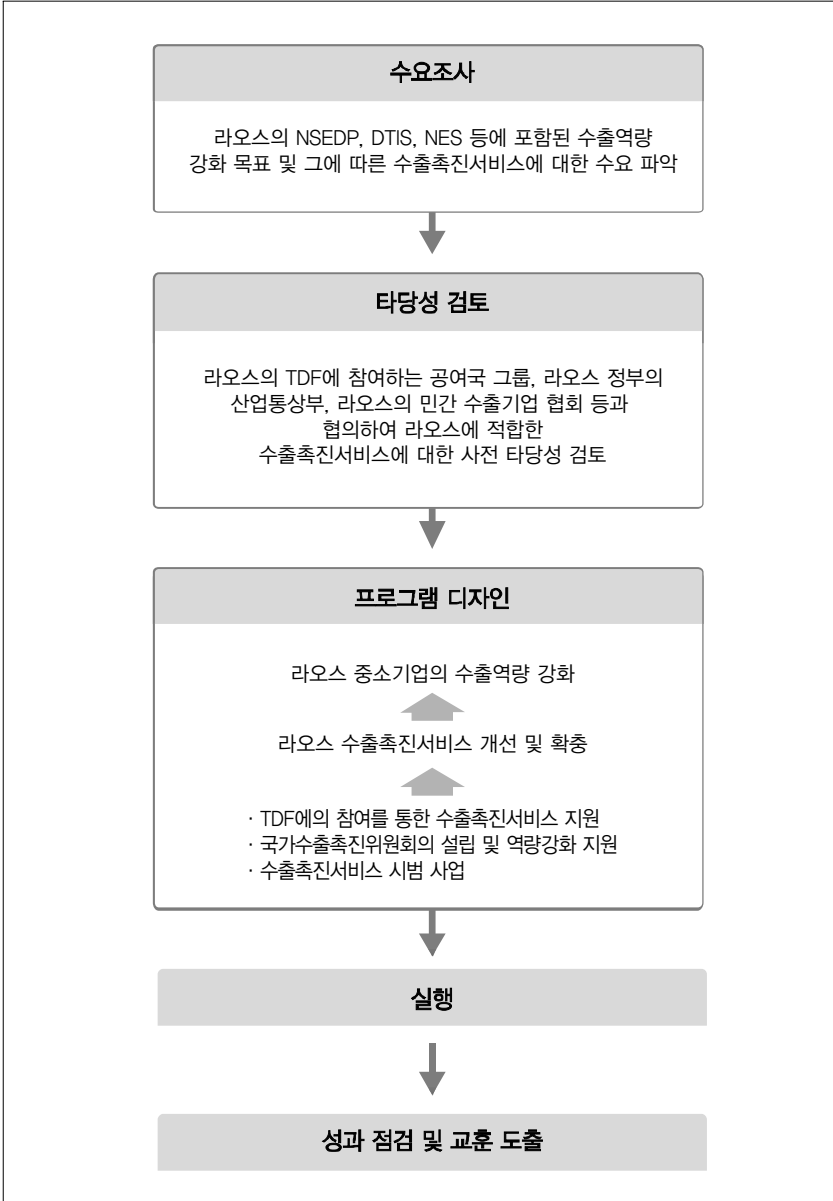
[2단계] 라오스의 국가수출촉진위원회 설립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 국가수출촉진위원회가 담당할 수출촉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과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 수출촉진서비스 담당 인력의 능력배양 지원 및 초청 연수
- 라오스의 주요 수출시장에 해외사무소 설립 및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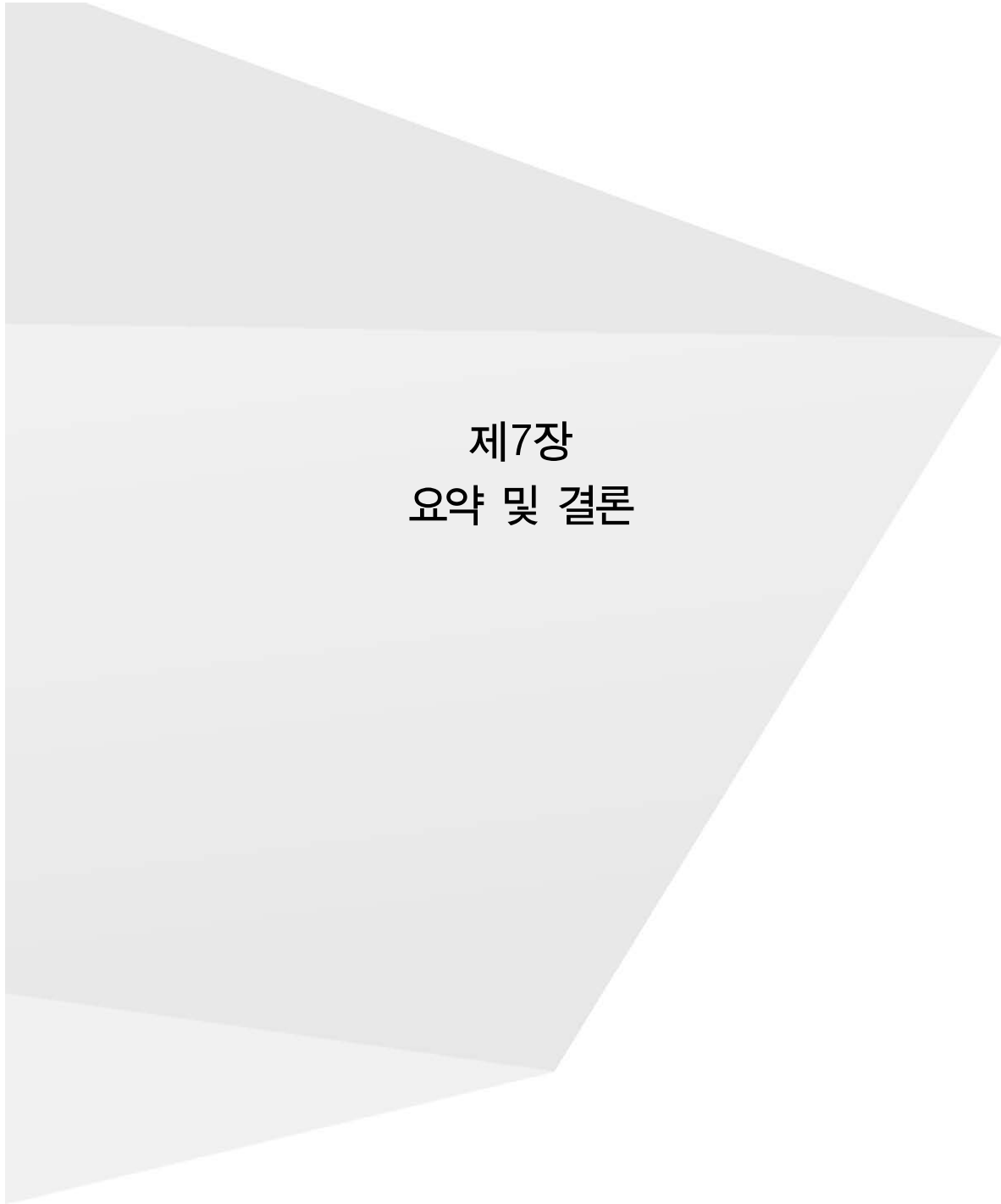
[3단계] 수출촉진서비스 시범 사업

- 유기농산물, 의류 등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촉진서비스 제공
- 해외 전시회 및 국내 무역박람회 개최 지원
- 인터넷을 통한 해외 마케팅 시스템 지원

그림 6-3. 라오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



자료: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AfT는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약정액 기준으로 200억~2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집행액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며, 특히 2011년에는 37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6%에서 2011년 현재 23.2%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과 개발의 주요이슈와 정책시사점』(강인수 외 2011)에서 제시된 한국의 AfT 정책방향과 전략모색에 기초하고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이호생 외 2012)에서 연구된 한국의 Af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라오스에 적합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는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무역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인데 이를 돕기 위해 World Bank는 1단계 Trade Development Facility(TDF-1)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다른 원조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라오스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National Implementation Unit(NIU)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무역원활화, 위생 및 검역(SPS)·무역 관련 기술장벽(TBT) 역량강화, 경쟁력 및 경영환경 개선, 무역정책 및 무역협정 역량강화, NIU 역량강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World Bank의 사업평가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만족(satisfactory) 수준으로 제시되

어 있다.⁶³⁾ 또한 World Bank는 TDF-2를 1,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새로이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에는 일반 산업 및 무역분야(50%), 기타 국내 및 대외교역분야(25%), 산업 및 무역 관련 공공행정 분야(25%)의 세 개 분야(sector)가 포함되며 주제(theme)로는 무역원활화 및 시장접근(30%), 지역통합(25%), 수출 개발 및 경쟁력(25%),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체계(10%), 기타 민간부문 역량발전(10%) 등이 선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의 전반적인 원조 상황과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의 라오스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라오스 의류산업을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라오스에 특정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63) Lord(2013).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은 낮은 생산성, 높은 운송비용과 오랜 리드타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으로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오스 비농업 경제활동인구 중 26만 명 정도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5만 명 정도가 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류업은 절대적으로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더하여 노동생산성도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제조업은 근로자의 낮은 교육수준을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어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 등이 이미 시행된 바 있으나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고, 실제 업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계층이 아닌 생산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오스 노동시장과 TVET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라오스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 의류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오스 TVET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기업 등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다. 그 밖에도 능력중심 프로그램 부족, 현대적 교육자료 및 교사 인력 부족, TVET 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평가 및 전문적 행정지원 부족, 국가자격체계의 미비의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라오스 TVET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국이 라오스 의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ET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기존에 설립한 직업훈련원은 라오스의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지원 없이 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지원 분야를 의류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기능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TDF 담당자와 면담 결과 한국의 TDF 참여가 의류기술훈련센터(GSC)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TDF 참여는 한국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라오스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TVET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원조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발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TDF를 통한 라오스 의류기술훈련센터(GSC) 사례와 ADB의 TVET 지원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 어떤 계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목표그룹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이후 목표그룹에 가장 필요한 직업기술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오스 TVET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ADB 등에 의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TDF 참여를 통한 시설과 정보 공유,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역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개발원조에 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이 특징인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축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신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가공, 목재가공 그리고 의류생산 등 라오스가 중점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려는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의 수출지원에 집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BCEL은 Packing Credit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증명을 제시하면 수출업자가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그 대출규모나 이자율 측면에서 라오스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되 활용재원을 확대하고 이자율의 특혜를 주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국영기업이나 이들 기업과의 합작외국인기업에 수출금융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양하고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금리의 제공이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의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의 특유한 상황 및 수요에 대한 분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역 관련 금융기관의 설립에 장애가 되는 라오스 특유의 요인을 분석하고 기존 무역금융 지원기관의 효과성 진단 및 라오스의 무역 관련 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재원(기금)의 규모와 조달방안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을 완료하면 라오스의 무역 관련 금융기관(수출입 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 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라오스의 해당 전문 인력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해야 하고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라오스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OJT도 실시해야 하며 라오스에 적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 수행 매뉴얼 작성도 필요하다.

또한 무역 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의 후속 및 보완 사업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연례 정책회의 개최를 통한 종합컨설팅의 실시, 한국 금융기관과 업무협조 네트워크 확대, 지속적인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지수를 작성하여 이에 기반을 둔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원조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촉진서비스와 관련한 한국의 대라오스 협조방안에 대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던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준공공기관으로 설립된 KOTRA가 다양한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OTRA는 세계적으로도 수출진흥기관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KOTRA의 수출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수출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수출 환경 및 기회에 대한 정보,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는 수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개발경험이 라오스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라오스에서 가동되는 TDF는 원조일치, 원조조화 등의 원조효과성 원칙에 매우 충실한 AFT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TDF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TDF가 수행하는 사업에 부분적으로나마 수출촉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TDF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TDF에서 추진하는 BAF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라오 무역 포털의 수출촉진서비스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촉진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무역촉진·제품개발국으로 수출촉진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이 사업개발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경험을 현지화하여 무역촉진·제품개발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DTIS 및 국가수출전략에서 국가수출촉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도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그 효과성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KOTRA의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는 한국의 수출촉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라오스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수출전략 및 DTIS 2012에 적시된 라오스의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개 분야에서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에 대한 지원에서도 한국은 다자차원에서 협조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개발시대의

경험을 갖고 있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분야에서의 원조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다면 원조의 조화(alliance)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⁶⁴⁾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서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으므로 한국의 원조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오스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국제경제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2013년에도 8%대의 성장을 달성하고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이러한 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라오스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기업의 수출산업의 신규진입,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개 분야의 원조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무역활성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라오스에서의 의류산업은 현재 라오스의 경제발전수준이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판단할 때 가장 빠른 시기에 해외수출시장의 추가적인 진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전력이나 광물

64)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과정에서 면담한 World Bank, GIZ, NIU 관계자들은 한국의 TDF-2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등의 자원수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AfT의 분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역금융과 수출촉진서비스는 이러한 의류산업의 수출가능성과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분야의 원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AfT 분야의 원조방향을 정할 때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무총리실.
 _____.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국무총리실.
 _____. 2013.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2013~2015』. 국무총리실.
 강인수·송유철·유진수. 20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ODA
 기초연구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윤수. 2011. 「무역진흥기관(TPO)의 설립」.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수출 진흥』.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1997. 『수출지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백두주. 201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특성과 효과: 라오스(Lao
 PDR)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권 3호, pp. 249~298. 전남
 대 5.18연구소.
 이요한. 2012.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전략
 지역심층연구 12-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생·강인수·이시욱. 2012.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ODA 정책연구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동주·차문중·권 율 외.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12-02-01.
 한국국제협력단. 2007.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_____. 2013.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한국개발연구원. 2005.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 _____. 2011.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수출 진흥』.
- _____. 2012. 『2011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스리랑카, 에콰도르』.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2011.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ODA 기초연구 1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 Abe, M., M. Troilo, J.S. Juneja and S. Narain. 2012. *Policy Guidebook for SME Development in the Asia and the Pacific*. ESCAP.
- ADB. 2010. “Proposed Gran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rengthe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 Project No. 42278.
- _____. 2011.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Banking Sector Reform Program.” *Validation Report*.
- Bank of the Lao PDR. 2013a. *Annual Economic Report 2012*.
- _____. 2013b. *Monetary Statistics Q3-4/2012*.
- Baldwin, R. 1970. “Non-tariff Distortions of International Trad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Cadot, O., A. Fernandes, J. Gourdon and A. Mattoo. 2011. *Where to Spend the Next Million? – Applying Impact Evaluation to Trade Assistance*. Washington, DC: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and the World Bank.
- Cadot, O., A. Fernandes, J. Gourdon and A. Mattoo. 2012. “Are Export Support Programs Effective? Evidence from Tunisia.” Mimeo.
- Chauffour, J-P, C. Saborowski, and A.I. Soylemezoglu. 2010. “Trade Finance in Crisis: Should Developing Countries Establish Export Credit Agenc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166.

- Committee of Donor Agencies for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2001.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for Small Enterprises: Guiding Principles for Donor Intervention(2001 Edition)."
- De Meza, D. 1989. "Not Even Strategic Trade Theory Justifies Export Subsidies." *Oxford Economic Papers*, Vol. 41, Issue 4.
- Driessler, W. 2013. "Lao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2012 – garment Skills Development Centre." The Service Centre of the Association of the Lao Garment Industry.
- Evans, P. and K. Oye.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Conflict and Cooperation in Government Export Financing." In G. Hufbauer and R. Rodriguez eds. *The Ex-Im Bank in the 21st Century: A New Approa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pecial Report 14.
- GIZ. 2012. *Enterprise Survey 2011*.
- Hayakawa, K., H.H. Lee, and D.H. Park. 2011. "Do Export Promotion Agencies Increase Exports?" IDE DISCUSSION PAPER No. 313.
- Hufbauer, G. and J. Erb. 1984. "Subsidies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 Kang, Kichung. 2010. "Overseas Network of Export Promotion Agency and Export Performance: the Korean Cas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29, No. 2, pp. 274-283.
- Keovongvichith, P. 2012. "An Analysis of the Recent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Laotian Banking Sector during 2005-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4, No. 4.
- Lederman, D., M. Olarreaga and L. Payton. 2010. "Export Promotion Agencies Revisite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1, pp. 257-265.
- Lord, Montague. 2013. "Trade Development Facility Evaluation." Presented to National Implementation Uni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of Lao PDR.
-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2010. *National Export Strategy(NES) for*

- the period of 2011-2016.* Lao PDR.
- _____. 2012.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 Lao PDR.
- _____. 2013. *Lao Garment Service Centre.* Lao PDR.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1. *Investment Guidebook.* Lao PDR.
-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Macroeconomy I 2012 and The Outlook in 2013.”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Lao PDR.
- OECD. 2011. *Aid Effectiveness 2011: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 Volume II.*
- OECD/WTO. 2013. *Aid for Trade and Value Chains in Textiles and Apparel.*
- Phouxay, K. and Aina Tollerfsen. 2011. “Rural-Urban Migration, Economic Transition, and Status of Female Industrial Workers in Lao PDR.” In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7, Issue 5.
- Staritz, Cornelia. 2010. “Making the Cut? Low Income Countries and the Global Value Chain in a Post-Crisis World.” World Bank.
- Stirbat, L., R. Record and K. Nghardsaysone. 2011. “Exporting from a Small Landlocked Economy – An Assessment of Firm-Product-Destination Survival Rates in Lao PD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69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Determinants of Export Survival in the Lao PD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301.
- UNDP. 2013. *The MDG Progress Report for the Lao PDR 2013.*
- World Bank. 2009. *Enterprise Survey 2009.*
- _____. 2010. “Lao PDR Trade Facilitation Performance.” Trade Development Briefing Note No. 2. World Bank Vientiane Office.
- _____. 2011a. “*Lao PDR: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 Policies to Promote Growth in the Non Resource Sec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11b. *Lao PDR Development Report –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try Economic Memorandum.

- _____. 2011c. *Lao Garment Sector Survey*.
- _____. 2012a. “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Grant in the Amount of US\$3 Million from the Trust Fund for Gaza and the West Bank to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for the benefit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for a Government Services for Business Development Project.”
- _____. 2012b.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Grant in the Amount of SDR 2.6 Million(US\$4 Million Equivalent) and a Proposed Multi Donor Trust Fund Grant in the Amount of US\$10 Million to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 Trade Development Facility Project.”
- _____. 2012c. *Lao PDR Economic Monitor*. DECEMBER 2011 UPDATE.
- _____. 2012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Lao PDR.”
- _____. 2012e. “Labour Standards and Productivity in the Garments Export Sector.”
- _____. 2013a.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 _____. 2013b.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 on a Multi Donor Trust Fund Grant in the Amount of US\$ 7.6 Million to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 Trade Development Facility Project.” World Bank Report No. ICR2684.
- _____. 2013c.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Lao PDR Economic Monitor.”
- World Economic Forum. 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 WTO/OECD. 2011.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1 - Showing Results*.
- _____. 2013.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3 - Connecting to Global Value Chain*.

[온라인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검색일: 2013.03.27~2013.11.21)
- BCEL. www.bcellaos.com(검색일: 2013.03.27~2013.11.21)
- CIA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검색일: 2013.03.27~2013.11.21)
-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검색일: 2013.03.27~2013.11.21)
- Lao PDR Aid for Trade. <http://laosoft.org>(검색일: 2013.03.27~2013.11.21)
- Lao PDR Trade Portal. [www.laotradeportal.gov.la](http://laotradeportal.gov.la)(검색일: 2013.03.27~2013.11.21)
- OECD Statistics. stats.oecd.org(검색일: 2013.03.27~2013.11.21)
-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3.03.27~2013.11.21)

부 록

부록 표 1. 라오스 TVET 디자인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디자인 개요	성과목표 및 기준치 지표	자료 및 보고방식	가정과 위험요인
영향: 라오스 내 기술 력을 가진 다양 한 인력	전체 노동자 중 공식적 TVET 자격요건을 가진 노동자 수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25% 상승할 것(여성은 50%) (기준 치는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	LMIS 국가, 지방 단 위 자료 인구 및 주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정부는 우선순위를 노동력기술 개발에 둠 • 위험요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없음 <p>주요 기술 분야에서의 고급기 술노동력에 대한 수요 하락</p>
결과(Outcome):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식적 직 업훈련 시스템	2015년 이내 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과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의 네 가지 주요 기 술 분야에서 TVET 졸업생의 65%가 졸업 6개월 내 취업할 것 (기준치는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 2015년 세 가지 비전통적 주요 기술 분야에서 여학생 진학률 이 0%에서 20%까지 증가	TVET 및 기관 기록 TVET EMIS 기록 고용주 만족도 조사 기관기준의 트레이 서 연구 LMIS 국가, 지방 단 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 TVET 목표에 대한 ESDF 공약 이 이루어지지 않음 <p>TVET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시각 은 TVET의 잠재적 훈련생들의 관심을 얻지 못함</p> <p>훈련을 받은 교사의 부족한 인 원수는 TVET의 질을 향상에 어 려움이 있음</p>
산출물(Output): 1. TVET의 수준 제고	2012년까지 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의 4가지 주요 기술 분야 내 모든 프로그램을 TWGs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 할 것 2011년 말, 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의 55%의 교사는 역량 개발 및 프로젝트 하에 개 발된 교육기준에 따름 일곱 개의 공공 TVET 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 졸업 생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가 2011년 17%에서 2015년 35% 까지 상승	TVET 환경 데이터 EMIS 데이터 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 및 네 개 의 사립 TVET 기관, 고용주, 교사, 학생, 졸업생 특별 조사 TVET 학생 및 교사 배치 기록 지역적 기준 (Regional Benchmark)과 비교 하여 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 및 네 개 의 사립 TVET 기관 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 TVET 개정 지원을 위한 법률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부록 표 1. 계속

디자인 개요	성과목표 및 기준치 지표	자료 및 보고방식	가정과 위험요인
2. TVET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및 접근성 증가	<p>일곱 개의 공공 TVET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 내 자격증 및 학위증 프로그램 참여율이 2011년 17%에서 2015년 35%까지 상승</p> <p>2015년 최소 25%의 배우처 수명인이 여성일 것</p> <p>여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수가 2010년 530개에서 2015년 5,000개까지 증가할 것</p>	<p>TVET 기관의 재학생 등록 데이터</p> <p>EMIS 데이터</p>	
3. TVET 전략 및 전달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증가	<p>2015년 일곱 개의 공공 TVET 기관 내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최소 25%의 민간부문과 25%의 여성대표를 포함할 것</p> <p>2015년 이내 모든 민간부문 산업협회는 NTC 민간참여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p> <p>2015년 이내 3,750명의 개개인은 스펙트리스트 계약 프로그램 훈련을 받을 것이며 최소 20%는 교사, 40%의 학생은 여성일 것</p> <p>2015년 이내 3,040명의 개개인은 기술 계약프로그램 훈련을 받을 것이며 50%는 여성일 것</p> <p>2012년 이내 네 개의 주요 기술 분야 교육과정은 TWGs를 통해 개발될 것</p> <p>조사 결과 일곱 개의 공공 TVET 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의 4가지 주요 기술 분야와 접촉하는 고용주의 수는 2011년 17%에서 2015년 40%까지 상승</p>	<p>TVET 기관 설문조사</p> <p>고용주 및 사업협회 설문조사</p> <p>재학생 등록 기록</p> <p>EMIS 데이터</p> <p>계약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공공 TVET 기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 • 위험요인 민간부문은 TVET 부문의 개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음 <p>정부는 NTC를 민간부문 중심으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가 부족함</p>

부록 표 1. 계속

디자인 개요	성과목표 및 기준치 지표	자료 및 보고방식	가정과 위험요인
4. 거버넌스 및 TVET 시스템 관리 강화	2015년 이내 20%의 교사는 유 연근무제도에 근무	규제프레임워크의 독립평가 EMIS와 LMIS 모니 터링 및 통계보고서 EMIS 및 LMIS 독립 평가	• 위험요인 TVET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 요한 법률 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음
	2014년 기금제도 추진 2015년 이내 일곱 개의 공공 TVET 기관 및 네 개의 사립 TVET 기관의 이사 및 고위간 부는 독립경영 및 리더십 기술 평가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것		
5. 효과적인 프로 젝트 관리 및 실행	2012년 이내 LMIS의 호의적인 독립 평가	훈련 전후 평가	-
	2014년, TVED는 연말 6개월 이내 TVET 통계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	경과보고	
5. 효과적인 프로 젝트 관리 및 실행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및 프로 젝트 실행 구성원은 Q4 2010 까지 갖출 것	경과보고	-
	사업모니터링과 평가(PM&E) 시스템은 Q4 2010년까지 작 용 가능할 것		

주: EMIS=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SDF=Education Sector Development Framework, LMIS=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NTC=National Training Council, PM&E=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Q=Quarter,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TVED=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Department,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WG=Trade Working Group.
자료: ADB(2010).

부록 표 2. 라오스 TVET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계획

위험요인	완화된 평가	관리 계획 및 대책	엄격한 평가
종합(Overall)	중	-	하
재무관리	중	교육부(MOE)는 회계 및 재무관리 분야의 직원 수를 늘리며 직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2010년 교육 분야의 재정관리 평가를 담당한다. 본 프로젝트는 PIU에 회계 직원을 제공하며 재정계획, 회계감사, 규제, 성과중심 계획 및 예산제도를 실행한다.	하
조달	중	실행 컨설턴트는 교육부의 현장관리 및 공사실행 (civil works implementation)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조달 역량을 보강할 것이다. PIU 담당자 중 특히 조달 담당자는 전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PIU 및 조달검토위원회는 토목공사, 입찰평가, 입찰 평가보고서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하
결과(Output)			
ESDF TVET 목표 달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중	프로젝트가 TVET 부문의 규모를 늘리는 대신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TVET에 대한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
훈련된 교사 수의 부족으로 인해 TVET 질의 향상이 어려움	중	프로젝트는 기관 내 교사훈련, 교사를 위한 직장 내 훈련, VEDC 강화를 포함한다. 교사를 위한 다양한 유연근무시스템은 TVET 기관이 더 나은 교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
TVET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TVET에 대한 잠재적 훈련생의 관심을 낮춤	중	사회 마케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및 TVET의 이익을 부각시킬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된다. 개선된 프로그램의 질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며 TVET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

부록 표 2. 계속

위험요인	완화된 평가	관리 계획 및 대책	엄격한 평가
산출(Output)			
민간부문은 TVET 개발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	중	프로젝트는 개인별로 무역전문가그룹(TWG)을 배정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산업협회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하
TVET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	대부분의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는 법적 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컨설턴트는 단가 자금제공 및 유연고용시스템을 위해 정부가 제안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위험관리를 위해 고용 변화는 신규고용에만 적용한다.	중
국가훈련위원회(NTC)가 민간부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중	정부는 NTC 강화 및 민간부문 중심으로 변화를 고려중이다.	하

주: ESDF=Education Sector Development Framework, MOE=Ministry of Education, NTC=National Training Council, PIU=Project Implementation Unit,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WG=Trade Working Group, VEDC=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자료: ADB(2010).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Trade Sector in the Lao PDR: Eval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Aid for Trade

Yoocheul Song, In Soo Kang, and Hosaeng Rhee

The total size of Aid for Trade (AfT) and the share of AfT in ODA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past decade. Likewise, Korea now gives greater priority to Aid for Trade in it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categorized 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o PDR is seeking to graduate from LDC status by 2020. In its 7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it is outlined that trade has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the country's economy. Theref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rade in Lao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fT programs.

After carefully observing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in Laos as well as aid activities by other donor countries, we have selected the garment industry, trade finance and export promotion services as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Korea possesses abundant experience in the above-mentioned areas since it utilized them to encourage trade activities during its development stage during the 1970's and the '80s. By reflecting on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the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challenges Laos is currently facing, and seeks to map out plans for future program to promote trade in Laos.

The garment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porting industries in Laos. However, its productivity is lower compared to competing countries. Therefore, we chose technical/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e garment industry as one of the fields for Korean AfT. The problems regarding TVET in Laos are as follows: difference between demand of the industry and supply from the TVET institutions, lack of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 and its constituent enterprises, and difficulty in accessibility. Therefore, we recommend development of a systematic support plan for TVET in the Laotian garment industry.

The high interest rates, small amount of loans and vulnerability of the private banking system are reasons why we also selected trade finance and export credit as one of the fields to be improved by Korean AfT.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private banks in Laos is very low and the net interest margin appears very significant. Therefore, utilization of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in trade financing to lower interest rates should be introduced at the first stage. Because the scale of trade financing is not sufficient to cover all sectors, a specific sector should be chosen to bring about sufficient results. However, Laos should follow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f the WTO, as it is a member of the WTO.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trade promotion service in Korea played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the amount of exports and diversifying export destinations. Because the private sector in Laos is not big enough to have a specialized 'section' for exports, a government-supported trade promotion service can bring new opportunities to the Lao private sector, and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t the first stage, the individual service based on a Trade Portal can be introduced;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affiliated trade promotion agency,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next stage.

The Aid for Trade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garment industry, and on trade finance/export credit and export promotion services can help economic development of Laos by increasing trade. Korea has much experience on its implementation from its own development process and Korea also has more than adequate experience in the aforementioned fields, in terms of ODA to help other countries. Therefore, AfT in these three fields can lead to greate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se fields are also relevant for Laos as the

Lao government placed much emphasis on them. If the work programs in this study are created and implemented, it would greatly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in Laos.

송유철(宋有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現, E-mail ycsong@dongduk.ac.kr)

저서 및 논문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2011)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2010) 외

강인수(康仁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iskang@sookmyung.ac.kr)

저서 및 논문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I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2012)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2011) 외

이호생(李鎭生)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hsr@mju.ac.kr)

저서 및 논문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I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2012)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2011) 외

KIEP ODA 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3년 ODA 정책연구
 - 13-01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 권 울 · 이주영
 - 13-02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정지선 · 오태현
 - 13-03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박복영 · 이홍식 · 구정우
 - 13-04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제 사례연구 / 김세원 · 김종섭 · 이영섭
 - 13-05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곽성일 · 이주영
 - 13-06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 정지원 · 송지혜
 - 13-07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 오윤아 · 박나리
 - 13-08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채재은 · 우명숙
 - 13-09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 김종일 · 윤미경
 - 13-10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 13-11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손혁상 · 안도경 · 박종희

- 2012년 ODA 지역연구
 - 12-01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권 울 · 김태윤 · 이재호 · 김유미
 - 12-0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2011년

12-03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주영 · 이시은

12-04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정지선 · 장종문 · 전해린

ODA 정책연구

12-01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 이호생 · 강인수 · 이시욱

12-0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
향과 과제 / 김종일 · 윤미경

12-03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 주상영 · 유재원 · 한홍렬

12-04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 송유철 · 임정빈

12-05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채재은 · 우명숙

12-06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 정지원 · 오탉현 · 송지혜

12-07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
정지원 · 강성진

12-08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곽성일 · 전해린 · 김민희

ODA 기초연구

11-01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 · 김낙년 · 황원규 · 윤미경

11-02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 · 송유철 · 유진수

11-0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11-04 ODA 분야에서의 민간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11-0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 김철희

ODA 정책연구

- 11-01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
손기태 · 김민희 · 박수경
- 11-0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
권 율 · 박수경 · 이주영
- 11-03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정지원 · 정지선
- 11-04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분석 / 정지원 · 박수경 · 임소영
- 11-05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 · 이주영

ODA 정책연구 13-10 / 연구보고서 13-39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인쇄일 | 2013년 12월 26일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일형**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 쇄 | 유월애 전화 02)859-2278

등 록 |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486-3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회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년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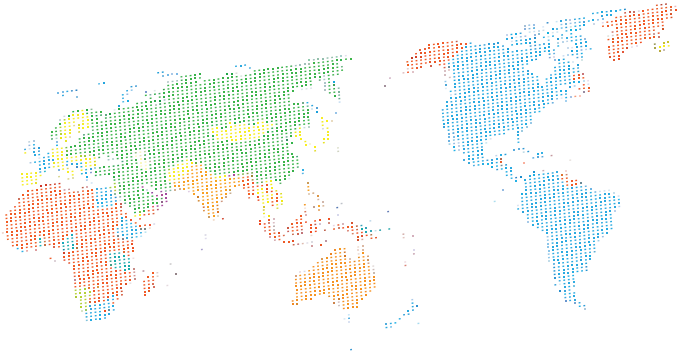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Trade Sector in the Lao PDR: Eval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Aid for Trade

Yoocheul Song, In Soo Kang, and Hosaeng Rhee

국제적으로 ODA에서 무역분야 개발협력(AfT)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AfT 관련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AfT 실제 대상국가로 라오스를 선정하고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들의 전반적인 원조 상황과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한국이 AfT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라오스 의류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무역금융에서는 국영 상업은행을 활용한 특정 분야의 무역금융 대출 이자율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 수출촉진 서비스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선진공여국들이 추진하는 TDF에 참여하여 수출촉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에는 대면 수출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